

다독다감

3월호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새로배움

[1 ~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㉓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㉔ 고향은 아니려뇨.

산쟁이 알을 품고
뼈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머언 항구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뭉 끝애 홀로 오르니
흰 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

- 정지용, 「고향」 -

(나)

[A] 이제 다시 것처럼 깨끗한 기도 만날 수 없으리

장독대 위 정한수 담긴 흰 대접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B] 어둠은 도둑걸음으로 졸졸졸 고여오다가
흰빛에 닿으면 화들짝 놀라 내뺄고는 하였다

어머니는 두 불에 홍조 띠고
두 손 가지런히 모아
천지신명께 일구월심 가족의 소원 대신 빌었다
감읍한 뒷산 나무들 자지러지게 잔가지를 흔들고

[C] 별꽃 서너 송이 고개 곱덕이며 더욱 환하게
웃어주었다 그런 새벽이면 어김없이 얼어붙은
비탈에 거꾸 엮어져 무릎 까진 밤새 울음이 있었다
풀잎들은 잠에서 깨어 부스럭대고

바지런한 개울물 들을 깨우려 가고 있었다
촉촉하게 짜여진 어둠의 천 오래 입은 낡은 옷 되어
톡톡 실밥이 터질 때 야행에 지친 파리한 달빛
맨발로 걸어들어와 벌컥벌컥 마셨다

[D] 광석들 가로 지르는 서울행 기차 목선 기적이
달아오른 몸 담가오기도 하였고 밤나무의,
그 중 실한 가지가 손 뻗어오기도 했으나
정한수는 줄지 않았다

장독대. 내 생의 뒤뜰에 놓여 있는,
생활이 타서 갈증으로 목이 마를 때

[E] 흰빛 내밀어 관하시느,
내 사는 동안 내내 위안이고 지혜이신 어른이시여,

- 이재무, 「장독대」 -

1 (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을 통해 시상을 마무리한다.
- ②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한다.
- ③ 같은 어구를 되풀이하여 의미를 강조한다.
- ④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한다.
- ⑤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드러낸다.

2 ㉓, ㉔와 관련하여 (가)의 '구름'을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㉓와 ㉔를 이어주는 매개물이다.
- ② ㉓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환기한다.
- ③ ㉔의 부재를 화자가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 ④ ㉓와 ㉔의 부정적 현실을 수용하려는 화자의 태도이다.
- ⑤ ㉓와 ㉔의 괴리를 경험하게 된 화자의 내면세계를 나타낸다.

3 <보기>를 바탕으로 (나)가 창작되었다고 가정할 때, [A]~[E]에 고려 되었을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3점]

< 보 기 >

어머니는 늘 정한수 한 사발을 장독대에 올리시고 기도하셨다. 흰 대접을 정갈하게 닦으시고 자식들을 향한 오롯하고 순전한 마음을 정한수에 담으셨다. 그럴 때면 아무도 당신을 범접할 수 없었다. 철없던 시절의 나는 왜 그렇게 어머니 곁을 벗어나려 했을까. 그러나 순간순간 삶에 지쳐 돌아올 때면, 정한수 정갈한 그대로운 채 어머니는 날 넉넉히 품어 주셨다.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제 그 자리엔 당신 곁을 묵묵히 지켜냈을 장독대만 놓여 있다.

- ① [A]: 시적 상황과 관련하여 화자가 자신의 과거를 원망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 ② [B]: '흰 대접', '은은한 빛', '흰빛'을 통해 '정한수'의 속성을 드러내어 어머니 기도의 정결함을 부각한다.
- ③ [C]: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만물을 감응시킬 정도로 어머니의 정성이 지극함을 강조한다.
- ④ [D]: 화자의 방황과 이탈 심리를 사물을 통해 드러내고, 마르지 않은 '정한수'를 통해 어머니의 사랑과 포용력을 제시한다.
- ⑤ [E]: 부재하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장독대'를 '어머니'와 동일시하며, 삶의 위안자로서의 '장독대'에 인격을 부여한다.

[4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前灘富魚蝦 앞 여울에 물고기와 새우가 많아
 有意劈波入 물결 뚫고 들어갈 생각 있는데
 見人忽驚起 사람 보고 문득 놀라 일어나서는
 蓼岸還飛集 여뀌꽃 핀 언덕에 도로 날아가 앉았네
 翹頸待人歸 목을 빼고 사람이 돌아가길 기다리다
 細雨毛衣濕 ㉠가랑비에 털옷이 다 젖는구나
 心猶在灘魚 마음은 여울의 물고기에 있는데
 人善忘機立 사람들은 말하네, 기심(機心)을 잊고 서 있다고
 - 이규보, 「여뀌꽃과 백로(蓼花白鷺)」-

* 기심 : 기회를 엿보아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

(나)

우뚝이 곧게 서니 본받음 직하다마는
 구름 깊은 골에 알 이 있어 찾아오랴
 이제나 광야에 옮겨 모두 보게 하여라 <제5수>

세상이 하 수상하니 나를 본들 반길런가
 왕기순인(枉己順人)*하여 내 여데 읊아 가로
 산 좋고 물 좋은 골에 삼긴 대로 늪으리라 <제6수>

천황씨(天皇氏) 처음부터 이 심산에 혼자 있어
 너 보고 반기기를 몇 사람 지냈던고
 만고의 허다 영웅을 들어 보려 하노라 <제7수>

소허(巢許)* 지낸 후에 엄 처사*를 만났다가
 아쉽게 여의고 알 이 없이 버려 있더니
 오늘사 또 너를 만나니 시운인가 하노라 <제8수>
 - 박인로, 「입암이십구곡(立巖二十九曲)」-

* 왕기순인 : 자기 몸을 굽혀 남을 좇음.
 ** 소허 : 소부(巢父)와 허유(許由). 상고 시대의 대표적인 은자(隱者).
 *** 엄 처사 : 엄자릉(嚴子陵). 한나라 광무제 때의 은자(隱者).

(다)

작년 봄에 이웃에서 파초 한 그루를 사 왔다. 얻어온 것도 두
 어 뿌리 있었지만 모두 어미 뿌리에서 새로 찢어낸 것들로 앉아
 서나 들여다볼 만한 키들이요 ‘요게 언제 자라서 키 큰 내가 들
 어선 만치 그들이 지나!’ 생각할 때는 적이 한심하였다.
 그래 지나다닐 때마다 눈을 빼앗기던 이웃집 큰 파초를 그예
 사 오고야 만 것이다. 워낙 크기도 했지만 파초는 소 선지가 제
 일 좋은 거름이란 말을 듣고 선지는 물론이고 생선 씻은 물, 깻
 목물 같은 것을 틈틈이 주었더니 작년 당년으로 성북동에선 제
 일 큰 파초가 되었고 올 봄에는 새끼를 다섯이나 뜯어내었다. 그
 런 것이 올 여름에도 그냥 그 기운으로 장차게 자라 지금은 아
 마 제일 높은 가지는 열두 자도 훨씬 더 넘을 만치 지붕과 함께
 솟아서 퍼런 공중에 드리웠다.

지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큰 파초는 처음 봤군!” 하고 우러러
 보는 것이다. 나는 그 밑에 의자를 놓고 가끔 남국의 정조(情調)
 를 명상한다.

파초는 언제 보아도 좋은 화초다. 폭염 아래서도 그의 푸르고
 싱그러운 그늘은, 눈을 씻어줌이 물보다 더 서늘한 것이며 비오
 는 날 다른 화초들은 입을 다문 듯 우울할 때 파초만은 은은히
 빗방울을 통기어 주렴(珠簾) 안에 누웠으니 듣는 이의 마음에까
 지 비를 뿌리고도 남는다. 가슴에 비가 뿌리되 옷은 젖지 않는
 그 서늘함, 파초를 가꾸는 이 ㉠비를 기다림이 여기 있을 것이
 다.

오늘 앞집 사람이 일찍 찾아와 보자 하였다. 나가니
 “거 저 파초 파십시오.”
 한다.

“팔다니요?”
 “저거 이전 팔아버려야 합니다. 저렇게 꽃이 나온 건 다 큰
 표구요, 내년엔 영락없이 죽습니다. 그건 제가 많이 당해본 걸
 입쇼.”

한다.
 “죽을 때 죽더라도 보는 날까진 봐야지 않소?”

“그까짓 이제 뒤 달 더 보자구 그냥 두세요? 지금 팔면 파초
 가 세가 나 저렇게 큰 것 오 원도 더 받습니다. ...누가 마침
 큰 걸 하나 구한다죠. 그까짓 슬쩍 팔아버리시죠.”

생각하면 고마운 일이다. 이왕 죽을 것을 가지고 돈이라도 한
 오 원 만들어 쓰라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마음이 열린 쓸리지
 않는다.

“그까짓 거 팔아 뭘 하우.”
 “아 오 원쯤 받으셔서 미달이에 비 뿌리지 않게 챙이나 해 다
 시죠.”

그는 내가 서재를 짓고 책상을 해 달지 않는다고 자기 일처럼
 성화하던 사람이다. 나는 책을 하면 파초에 비 맞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몇 번 설명하였으나 그는 종시 객쩍은 소리로밖에 안
 듣는 모양이었다. 그는 오늘 오후에도 다시 한 번 와서,
 “거 지금 좋은 작자가 있는덴쇼.....”

하고 입맛을 다시었다. 정말 파초가 꽃을 피우면 열대지방과 달
 라 한 번 말랐다가는 다시 소생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마당에서, 아니 내 방 미달이 앞에서 나와 두 여름을 낫고 이
 제 그 발육이 절정에 올라 꽃이 핀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가 한 번 꽃을 피웠으니 죽은들 어찌리! 하물며 한마
 당 수북하게 새순이 솟아오름에랴!

소를 길러 일을 시키고 늪이면 팔고 사간 사람이 잡으면 그
 고기를 사다 먹고 하는 우리의 습관이라 이제 죽을 운명엿 파초
 니 오 원이라도 받고 팔아준다는 사람이 그 혼자 드러나게 모진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무심코 바람에 너울거리는 파초를 보고
 그 눈으로 그 사람의 눈을 볼 때 나는 내 눈이 뜨거웠다.

㉠ “어서 가슈. 그리구 올라가을엔 움이나 작년보다 더 깊숙하게
 파주슈.”

“참 딱하십니다.”
 그는 입맛을 다시며 돌아갔다.

- 이태준, 「파초」-

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대상을 본받으려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② (나)와 (다)에는 자연물과의 친밀감이 바탕에 깔려 있다.
- ③ (가)와 (다)에서는 의인화된 대상을 화자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
- ④ (가)~(다) 모두 내면적인 갈등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⑤ (가)~(다) 모두 세속을 떠나 이상을 추구하려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5 시어나 시구를 중심으로 (가)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물고기'와 '새우'는 백로 입장에서 욕망의 대상이다.
- ② 백로는 '사람' 때문에 일시적으로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 ③ 백로가 '여뀌꽃 핀 언덕'에 서 있는 모습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 ④ '사람들'과 화자 모두 백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 ⑤ 백로가 '여울의 물고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기심'을 잊지 못해서이다.

6 ㉠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는 배척의 대상이고 ㉡는 그리움의 대상이다.
- ② ㉠, ㉡는 모두 글쓴이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 ③ ㉠, ㉡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알게 해 주는 소재이다.
- ④ ㉠는 대상이 처한 상황, ㉡는 대상이 지닌 속성을 부각시킨다.
- ⑤ ㉠는 연민의 정서를 불러일으키지만, ㉡는 동경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7 <보기>를 바탕으로 (나)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적

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박인로의 '입암이십구곡' 중 여기에 제시된 <제6수>와 <제8수>에는 '바위가 답함[암답(巖答)]'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화자와 바위가 말을 주고받는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때, 시상 전개상의 특징과 그에 따른 시적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 ① <제5수>에 사용한 설의법을 <제6수>에서도 구사하여 두 수의 긴밀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② <제5수>와 <제6수>는 각각 바위의 위치에 대한 화자와 바위 사이의 의견 교환으로 볼 수 있다.
- ③ <제6수>에서 화자의 제안을 거절하는 바위의 입장을 제시하여 세속에 대한 비판 의식이 강하게 느껴지고 있다.
- ④ <제7수>에서 화자가 궁금하게 여긴 내용에 대해 <제8수>에서는 바위의 입장에서 풀어주고 있다.
- ⑤ <제8수>에서 '만고의 허다 영웅'에 '너'를 포함시킴으로써 바위의 고고함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8 ㉠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물음에 대한 대담으로 거리가 먼 것은?

선생님 : ㉠에서 글쓴이는 '앞집 사람'의 거듭된 제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앞집 사람'이 답답해 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 ① 글쓴이가 파초에 많은 정성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 ② 글쓴이가 파초와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 ③ 파초를 팔라고 권하는 앞집 사람을 언짢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 ④ 파초를 인격체처럼 대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⑤ 파초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9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투병 중이던 최 교수의 부고를 듣고, 서울행 비행기를 탈지 말지 망설인다. ‘나’는 과거 최 교수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는 응접실로 나오지도 못하고 ㉠ 안방에 딸린 침구 위에서 나를 맞았다. 전번에 찾아오려고 했을 때, 병원에 가고 안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 두 주일이 지나 있었다.

“그렇겠지. 막살아왔다면,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왔다면, 어떻게 든 살아보겠다고 무슨 짓이든 하겠지. 그러나…… 난 그렇지가 못하잖아. 그렇게 막살지도 못했잖아.”

㉡ 얼음 조각을 하듯 그렇게 사셨을 것이다. 깨뜨리면 잘못 부수면 회복이 안 되는 것으로 사신 시간들일 것이다. 선생님의 시간.

“폭력적인 생각이 자주 들곤 해. 뛰어나릴까. 그래서라도 죽는 게 낫지 않나. 딱 죽는 약이 있으면 먹을까도 싶고. 이런 폭력적인 생각을 또 고쳐. 내가 이래선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왜 그런 약한 생각을 하세요. 나는 겨우 그렇게 중얼거리려다가 목이 아프게 누르며 그 말을 참았다. 아무것도 선생님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지 못했다.

“죽음이…… 화려하게까지 느껴지기도 해. 그게 두렵지가 않아. 이상하지. 전에 할아버지 무덤에 가 앉아 있을 때 생각이 나. 그때, 그 웅덩이가 푸른 잔디를 보며 앉았노라면 그렇게 좋고 평화스러울 수가 없었어. 내가 이제 여길 내려가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곤 했었지. 물론 살아가며, 순간순간의 기쁨이야 있겠지. 그러나……”

㉢ 이미 노오랗게 물들어 있는 선생님의 눈을 나는 가만히 바라 보았다. 병이 저렇게 만든 것일까. 검고 컸던 선생님의 눈. 우리는 이다지도 무력한가. 우리가 무엇을 이룩하겠다고. 무엇을 남기겠다고 매일을 고단하게 살았던 말인가. 메마른 입술을 적시며 선생님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길에 커튼이 열려진 창에 가 멎었다. 텅 빈 하늘이 거기 가득했다.

“끊임없이 싸워. 정상적인 자아와 병든 자아가 이십사 시간을 싸워. 이게 나야. 내가, 두 개의 내가 살아 있어. 내가 나를, 정상적인 자아가 병든 자아를 두 시간만 재워 놓자. 그러면서 잠이 들어. 여덟 시에 깨우자. 그러면서 살아. 병든 자아를 달래서 약을 먹고, 병든 자아에게 사정해 가며 물도 몇 모금 먹고……”

그때, 왜 그 생각이 떠올랐을까. 그것은 내가 본 처음이자 마지막 한 번의 선생님이었다. 그때 선생님은 대학의 보직을 맡고 있었다. 마침 약속이 있어서 학교 본관의 처장실로 찾아갔을 때였다. 그때 다른 단과 대학의 학장을 했던 원로 교수 하나가, 최명하 너 이놈 하고 고향을 치며 처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었다. 그는 아마 선생님보다 스무 해는 나이가 위였을 게다. 그를 향해서 그때 선생님이 소리쳤다. 학자라는 게 나잇값도 못하고! 당신하고 할 이야기 없으니 당장 나가! 놀라서 집무실 한구석에 나는 서 있었고, 선생님은 그 노교수의 등을 밀어 밖으로 내몰았다. ㉣ 문을 닫아걸며 선생님이 내뱉듯 말했다. 무슨 부정입학생 명단을 수첩에 적어 가지고 합격을 시키자니! 그걸 내가 못 한다고 잘랐더니 저 주책이

야! 그때는 마침 입시철이었다. 그러럼 격렬하고 단호했던 선생님의 모습이 갑자기 왜 떠오르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때의 그 선생님, 또 다른 선생님의 자아를 생각했던 것일까.

㉤ 메마른 발을, 여윈 발을 당겨 앉은 자세를 바꾸며 그때 선생님이 중얼거렸다.

“항 교수, 그 사람이 뭔데 나보다 이십 년을 더 살아.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나보다 이십 년을 더 살다니.”

항 교수. 그분은 선생님과 가까운 국문과 교수였고, 원로소설가였다.

“오늘 비행기는 전연 예약이 안 되네요. 그냥 비행장으로 나가 보실래요. 좌석이 있으면 탈 수도 있을 테니까요.”

아내의 그런 말을 들으며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아니, 가지 않겠어. 병든 자아와 정상적인 자아가 아냐. 수없이 많은 내가 내 속에 있어. 그의 죽음을 지켜보며 나는 또 얼마나 많은 자아와 싸웠던가. 때로는 두려웠던 나. 때로는 슬펐던 나. 때로는 그의 병들을 보며 살아있는 자신이 기뻐던 나도 있었어. 그의 무너져 가는 몸을 보며, 건강에 조심해야지 하고 쥐가 천장을 갈아대듯 속삭인 나도 있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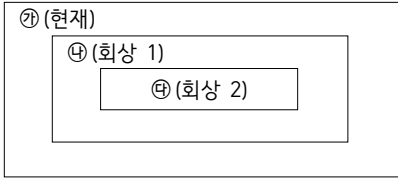
[A] 그는 새로 뺀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맺다. 비푼어진 매듭을 거울 속으로 바라보며 다시 뭘까 어쩔까를 그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양복을 걸치며, 넥타이를 고치지도 다시 매지도 않은 또 하나의 자신에게 말했다. 두 시의 약속을 미룰걸 그랬어.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기 위해 구두를 신으며 그는 오늘 저녁에는 술을 마시자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많이 마시지는 마. 밖으로 나셨다. 바람이 빗발을 뿌려 그의 구두를 젖게 했다. 그는 우산을 바람 쪽으로 기울이며 걸음을 빨리했다. 비는 모래알같이 뿌려졌다. 골목에는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 사막 같았다. 비를 맞고 있는 집과 나무와 아스팔트 포장 이 된 골목을 바라보았다. 사막. 순간 그는 자신 속에 아무도 살아 있지 않다고 느꼈다. 어떤 모습의 그도.

- 한수산, 「타인의 얼굴」 -

9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내면 의식 묘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나’의 공간 이동에 따라 서사의 속도가 달라지고 있다.
- ③ 동일한 사건이 선생님의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
- ④ ‘나’가 선생님의 생각을 따르게 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 ⑤ ‘나’의 체험과 선생님의 체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차되고 있다.

10 위 글의 시간 구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때, ㉗~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㉗은 선생님의 부고를 들은 후의 시간이다.
- ② ㉘는 선생님에게 병문안을 갔을 때이다.
- ③ ㉙는 선생님이 대학에서 보직을 맡고 있을 때이다.
- ④ ㉘의 선생님의 모습이 ㉙를 떠올리게 한다.
- ⑤ 향 교수에 대한 선생님의 말로 인해 ㉙에서 ㉗로 돌아온다.

11 <보기>를 바탕으로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우리는 타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타인에 대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인식하지 못했던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낯선 체험을 할 수 있다. 타인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체험은 자아와 삶의 본질에 대한 사색으로 이어진다. 이 작품의 제목인 '타인의 얼굴'은 이런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① 거울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자신'은 '또 다른 나'에 해당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 ② 선생님은 '나'가 삶의 본질에 대해 사색하게 하는 '타인의 얼굴'로 볼 수 있다.
- ③ '사막'은 삶의 본질에 대한 '나'의 인식과 내면을 보여 주는 상징적 이미지라 할 수 있다.
- ④ '나'가 '그'와 대화를 하는 행위는 자아와 삶의 본질에 대해 사색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 ⑤ '자신 속에 아무도 살아 있지 않다'고 느낀 것은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 ㉑~㉓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 선생님의 병세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 준다.
- ② ㉒ : 지난날 선생님의 신중하고 철저했던 삶을 나타낸다.
- ③ ㉓ : '검고 컸던 선생님의 눈'과 대비되어 선생님의 심신의 변화를 나타낸다.
- ④ ㉑ : 격렬하고 단호했던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⑤ ㉑ : 삶에 대한 선생님의 초연한 태도를 드러낸다.

[13 ~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리고 성근 매화(梅花) 너를 미지 안았더니
 눈 기약(期約) 능(能)히 직켜 두세 송이 푸엿구나
 촉(燭) 잡고 갖가이 사랑홀제 암향부동* 흐더라 <제2수>

빙자옥질(冰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이 향기(香氣) 노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期約)하니
 아마도 아치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흐노라 <제3수>

눈으로 기약(期約)터니 네 과연(果然) 푸엿고나
 황혼(黃昏)에 달이 오니 그림조도 성기거다
 청향(清香)이 잔(盞)에 씻스니 취(醉)코 놀너 흐노라 <제4수>

황혼(黃昏)의 돛는 달이 너와 기약(期約) 두엇더나
 합리(閣裡)*의 즈든 솟치 향기 노아 맞는고야
 니 엇지 매월(梅月)이 벗 되는 줄 몰났던고 흐노라 <제5수>

- 안민영, 「매화사」 -

* 암향부동 : 그윽한 향기가 은근히 떠돌.

* 합리 : 방 안.

1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에 대해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② 대상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영탄적 표현으로 화자의 감흥을 표출하고 있다.
- ④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얻고 있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매화사」는 8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이다. 연시조에는 내용이 나 형식 면에서 각 수를 통합하는 구성 원리가 있다. 이 작품의 경우 매화를 중심으로 통합이 이루어진다. 매화가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의 행위나 '눈', '달'과 같은 다른 자연물과의 조응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 ① <제2수>에서 화자는 '어리고 성근 매화'가 꽃을 '두세 송이' 피운 것을 '눈'과의 기약을 지킨 결과라고 여기고 있다.
- ② <제2수>에서 화자가 '촉 잡고 갖가이 사랑'하는 행위에 매화가 향기를 내어 조응하고 있다.
- ③ <제3수>에서 '눈'과 '달'의 조응이 이루어진 후에야 화자와 '매화' 사이에도 조응이 일어나고 있다.
- ④ <제4수>에서 '달'이 뜨자 매화가 '그림조'를 나타내고, 화자의 '잔'에도 매화의 '청향'이 차오르고 있다.
- ⑤ <제5수>에서 화자는 '합리의 즈든' 매화가 일어나 향기를 내는 것은 '황혼의 돛'을 맞이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15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천상에서 지은 죄로 인간 세상에 태어난 김진옥은, 내란으로 부모와 헤어지고 화산도사를 만나 무예와 학문을 익혀 한림학사가 된다. 황제는 진옥이 공주와 결혼하기를 바라지만, 천상의 인연에 따라 진옥은 유승상의 딸(유부인)과 결혼한다. 이후 전여선과 결혼한 우양공주는 진옥에 대한 복수심으로 간신들과 결탁하고, 진옥이 전쟁에 참여한 틈을 노려 그의 가족을 죽이려고 하지만 김응철 등의 반대와 황후의 만류로 결국 실패한다. 황제는 진옥을 양산군에, 유부인을 정렬부인에 봉하고, 유부인과 김진옥은 공주의 죄를 용서한다.

부마 전여선과 공주가 양산군을 시기하여 다시 해하고자 하되 온갖 계교를 다 써도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함이라. 서로 의논하되, 태자(太子)를 죽이고 천자와 양산군을 내치고 **천자의 지위를 빼앗고** 하여 계교(計巧)를 행할새, 장군 이지필과 수문장(守門將) 양철 등으로 더불어 약속을 정하니라.

이때 태자의 나이 구세라. 총명하여 백사(百事)를 무불통지(無不通知)하니, 일세성군이 될지라. 일일은 후원의 봄 풍경을 완상하고 돌아올새 태자 침전에 드사 우연히 찬 기운이 몸에 닿아 병이 나서 침석에 누워 계시더니, 공주가 천자에게 나아가 아뢰되,

“태자가 양산군과 함께 후원에 가 놀고 돌아와 병이 나서 기운이 불평하시니 실로 안타깝고 답답하여이다.”

상이 들으시고 대경하사 양산군을 청하여 태자의 병을 의논하실새, 공주가 **태자궁(太子宮)**에 이르러 문병하고 모셔 있다가, 시녀가 탕약(湯藥)을 올리려 하거늘 공주가 받아 가지고 들어오며, 미리 독약을 몸에 지녔다가 빨리 내어 **탕약에 타** 가지고 들어와 태자에게 드리니, 태자가 드시려 하다가 약 냄새 심히 독한 듯하니 먹을 길이 없는지라. 이에 가로대,

“아직 싫으니 조금 지체하여 먹으리라.”

공주가 왈,

“약을 드시지 않으시면 신체 안위를 어느 때에 회복하시리잇고?” 하며 약그릇을 받들어 간곡히 권하니, 태자가 마지못하여 약을 받아 마시니, 가련하다! 어린 태자가 독약이 장위(腸胃)에 들어가니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공주가 가만히 심복을 불러, **경화문 밖**에 이지필과 양철을 매복하였다가 양산군이 나가거든 내달아 베라 하고, 한편으로 모든 간신에게 알리되, ‘이제 태자가 약을 먹었으니 분명 죽을지라. 오봉루에 북을 울리면 모든 신하가 들어올 것이니, 불문곡직하고 다 베라.’하고, 공주가 급히 천자 침전에 들어가 황망히 아뢰되,

“태자가 병세 위중하시니 신첩이 너무나 황공하나이다.”

하고 나와 부마를 청하여 귀에 대고 계교를 가르치니, 부마가 기꺼 양산군을 보고 왈,

“내 들으니 정렬부인이 만삭에 낙태하여 위급하다 하더이다.”

양산군이 그 말을 듣고 대경하여 급히 나오려 하더니, 홀연 한 궁녀가 고하되,

“태자가 즐지에 승하시니이다.”

할 즈음에 천자가 들으시고 대성통곡(大聲痛哭)하여 양산군을 부르샤 한가지로 태자궁으로 들어가시는지라.

전여선이, 천자와 양산군이 친히 태자의 시체를 보시면 독약에 의해 죽음을 아시고 사정을 조사하여 밝히면 역모가 탄로할까 하

여 급히 꺾문으로 나가 일을 주선하려 하더니, 매복하였던 복병이 양산군이 나오는 줄 알고 내달아 일시에 창검을 들어 죽이고 보니 양산군이 아니요, 부마 전여선이라. 모두 대경실색하여 아모리할 줄 모르더라.

차시 김응철이 태자가 승하고 꺾내에 대변(大變)이 났음을 듣고 크게 놀라 황극전(皇極殿)에 들어오더니, **황화문 밖**에 이르러 보니, 도총장군 정한영이 품속으로 ① 일봉서(一封書)를 내어주거늘, 응철이 보고 수상히 여겨 수문장(守門將)더러 문왈,

“그대 무슨 서간을 받으요?”

수문장이 대왈,

“한영이 주기로 받았나이다.”

하고 손을 들어서 북(北)을 가리키니, 복병(伏兵)이 이에 응하여 내달아 응철을 에워싸고 죽이려 할새, 동령장군 호동과 우승상 조선이 들어오거늘, 응철이 한칼로 수문장을 베고 그 서간을 얻으니, 복병이 다 흩어져 달아나더라.

응철이 그 서간을 양산군께 드리니 양산군이 보고 대경낙담하여 정신을 진정치 못하더라. 양산군이 급히 본부(本府)로 돌아와 목욕재계하고 종남산을 향하여 삼 일을 지성으로 기도하니, 화산도사가 **구름을 타고 내려와** 양산군의 손을 잡고 왈,

“그대 무슨 연고가 있어 나를 청하나뇨?”

양산군이 공경 대왈,

“국가에 망극한 변(變)이 있사와 선생을 뵈옵고자 함이니이다.”

도사가 왈,

“이제 태자가 별세하시고 꺾중에 대변(大變)이 난 줄 내 이미 짐작하고 회생하는 약을 가져왔으니, 가져다가 태자의 입에 넣으면 회생하리니 빨리 가서 구하고, 더디지 말라.”

하고 갑자기 사라지거늘, 양산군이 공중을 향하여 사례하고 **꺾내**를 향하여 들어오더라.

차시 공주가 태자를 독살하였으나 부마가 죽고 의논할 사람이 없으니 정히 답답하더니, 일계를 생각하고 꺾내에 들어가 울며 상께 아뢰니,

“양산군을 성상이 태산 같이 믿으시나, 신첩이 자세히 듣자오니 양산군이 환자(宦者)로 더불어 동모(同謀)하여 먼저 태자를 독살하고 천자의 지위를 도모하다가, 부마가 알고 들어오매 황상께는 미처 범치 못하고 먼저 애매한 부마를 해(害)하니이다.”

상 왈,

“네 어찌 그 진위를 자세히 아난다?”

공주가 체읍 대왈,

“도총장군 한영이 그 말을 하더이다.”

상이 진노하사 급히 한영을 잡아들어 엄히 국문하시니, 한영이 아뢰는 말이 또한 공주의 말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지라. 상이 크게 의심하시더니 김응철이 아뢰길,

“공주가 태자 전하를 독살하여 승하시게 한 후 모역(謀逆)하려다가 성사치 못하고, 하늘이 무심치 않으사 반수기양(反受其殃)하옵고 죄를 남에게 돌려보내려 하여 무죄한 양산군을 모함하오니 공주를 바빠 국문하사 그 간상(奸狀)을 자세히 조사하여 밝히옵소서.”

상이 들으시고 반신반의(半信半疑)하사 결정을 유보할 즈음에

양산군이 들어오거늘, 상이 문왈,
“경이 어디로 갔도뇨?”

양산군이 태자의 급하심을 보고 회생하실 약을 구하려 갔던 일을 아뢰고, 즉시 ㉠ 환약(丸藥)을 내어 드린 후 천자와 한가지로 태자궁에 들어가 태자를 뵈오니, 승하하신 지 오래되 조금도 생시나 다름이 없는지라. 즉시 약을 받들어 태자의 입에 넣으니 이윽고 호흡을 통하여 회생하시거늘, 상이 태자의 환생함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야 왈,

“경의 태산 같은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으리오.”

하시고 역모를 모의한 자들을 조사하여 장안에 참하고 인하여 양산군과 김응철로 더불어 국사를 의논하여 다스리니, 차후는 천하가 태평하고 사방이 무사하여, 산에 도적이 없고 백성이 평안하더라.

-작자 미상, 「김진옥전」-

* 환자(宦者): 환관, 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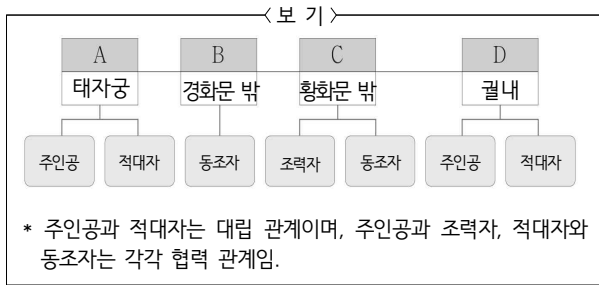
* 반수기양(反受其殃) : 남에게 재앙을 입히려다 오히려 재앙을 당함.

1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배경 묘사를 활용하여 특정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 ② 특정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와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서사를 빠르게 전개시키고 있다.
- ④ 대화를 통해 악인의 교활한 면모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 ⑤ 동일한 사안에 대한 두 인물의 상반된 진술이 드러나 있다.

16 <보기>는 윗글의 주요 공간 및 관련 인물을 구조화한 것이

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인공은 '태자의 죽음'을 알게 된 후 A로 이동하게 된다.
- ② 적대자는 B의 동조자에게 '부마의 죽음'을 막기 위해 주인공을 해칠 것을 지시한다.
- ③ 조력자는 '태자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입궐하지만 C에서 기다리던 동조자에 의해 위기를 맞게 된다.
- ④ 적대자는 D에서 '태자의 죽음'과 '부마의 죽음'을 모두 주인공 탓으로 돌린다.
- ⑤ 주인공은 D로 이동하여 '태자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을 밝힌다.

1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영웅소설은 도식성과 환상성이라는 특징을 지니는데, 영웅의 위기와 극복 과정은 도식성에, 초월적 존재의 개입은 환상성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김진옥전'의 경우, 애정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확장되면서 해소된 듯한 갈등이 재발하고, 신이한 존재의 능력이 부각되는 등 도식성과 환상성이 강화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층을 고려한 결과로도 볼 수 있는데, 위기 상황의 반복은 독자들에게 긴장감과 함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신이한 존재의 개입에 의한 갈등 해소는 독자들의 긴장감을 이완시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 ① '천자의 지위를 빼앗으려는 행위는 인물 간의 애정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확장된 것'이자 도식성이 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군.
- ② '독약'을 태자의 '탕약에 타'는 대목에서 독자들은 긴장하면서도 이후 전개될 내용에 흥미를 느낄 수도 있겠군.
- ③ 신이한 존재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은 영웅 소설의 환상성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군.
- ④ 위기 상황을 '미리 짐작'하고 '회생하는 약을 가져'온 행위는 초월적 존재의 능력이 부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군.
- ⑤ '한영'을 '잡아들여 엄히 국문'하는 장면에서 독자들의 심리는 급속히 이완되어 안정감을 찾겠군.

18 ㉠과 ㉡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 통해 인물은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되고, ㉡을 통해 인물에 대한 다른 인물의 신뢰가 유지된다.
- ② ㉠을 통해 인물은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게 되고, ㉡을 통해 인물은 과거의 상황을 떠올리게 된다.
- ③ ㉠을 통해 인물의 과거 행적이 드러나게 되고, ㉡을 통해 상황에 대한 인물의 판단이 유보된다.
- ④ ㉠을 통해 인물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고, ㉡을 통해 인물이 모함에서 벗어나게 된다.
- ⑤ ㉠을 통해 인물 간의 대립은 완화되고, ㉡을 통해 인물 간의 긴장이 고조된다.

[1 ~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대 철학의 포문을 연 데카르트와 그 후예들의 문제 설정의 중심에는 '주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근대 철학은 헤겔 이후 도전에 직면하였으며, 특히 인간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는 근대 철학의 지배적 이념이 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근대 철학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으로 환경론자들의 주장을 들 수 있다. 환경론자들에 의하면 근대 철학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인간을 주체로, 자연을 인간에 의해 인식되고 지배되는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라는 부당한 이념을 유포시켰다고 주장한다.

환경론자들은 근대를 주도하고 지배하던,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위세를 떨치고 있는 과학기술주의에 주목하였다. 과학 기술주의는 근대 철학의 영향으로 자연을 수량화와 계산을 통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창고로 바라보았다. 그 결과 자연 파괴는 물론 그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삶에 전반적인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것이 환경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환경론자의 비판에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 현대 철학자로 하이데거를 들 수 있다. 그에 의하면 근대 철학의 근본적 특징은 인간 중심주의이자 이성 중심주의이다. 이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인간에 의해 인식되고 파악되고 지배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는 계산적 사유에 근거한다. 즉 ㉠ 계산적 사유로서의 이성은 모든 ㉡ '존재하는 것(존재자)'을 '주체'인 인간의 지배 대상으로 전락시켰으며, 이로 인해 존재자의 본원적인 존재 의미는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존재자 본연의 존재 의미를 성찰하면서 새로운 사유의 지평을 열었다. 그는 존재자들이 전체 속에서 의미 있게 결합되어 있는 관계로 존재한다고 하면서, 존재자는 그러한 관계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또한 그 전체 연관성 속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성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근대 철학의 지배적 이념은 헤겔 이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 ② 환경론자들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근대 철학의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하였다.
- ③ 과학기술주의자들은 자연을 수량화와 계산을 통해 지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았다.
- ④ 환경론자들은 자연 파괴로 인한 피해보다는 인간 삶에 닥친 위기에 더 관심이 많았다.
- ⑤ 하이데거는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2 ㉠과 ㉡을 중심으로 하이데거의 주장을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근대 철학의 이성 중심주의는 ㉠에 근거하고 있다.
- ② 근대 철학에서 ㉡은 인간을 대상화하면서 생성되었다.
- ③ ㉠으로 인해 ㉡의 본원적 존재 의미가 상실되었다.
- ④ ㉡의 본원적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을 극복해야 한다.
- ⑤ ㉡은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연관성과 유일성을 갖는다.

3 글쓴이가 뒷글에서 <보기>를 활용한다고 할 때, 그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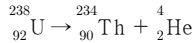
근대 철학에서 '주체'는 사유하고 지각하는 존재로서 의식의 단일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충동과 욕망 같은 '무의식'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지배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 ① 하이데거의 '존재자' 개념의 타당성을 확보한다.
- ② 근대 철학의 '주체' 개념을 비판하는 논거로 삼는다.
- ③ 근대 철학에서 '주체' 개념이 변화해 온 과정과 배경을 밝힌다.
- ④ 근대 철학의 관점에서 하이데거의 비판을 재반박하는 논거로 삼는다.
- ⑤ 하이데거의 '새로운 사유'가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에 근거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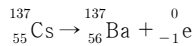
[4 ~ 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연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원자핵은 안정된 상태이지만, 원자 번호가 83을 초과하면 양성자 사이의 전기적 반발력이 커져 불안정해진다. 이러한 원자핵은 자발적으로 방사선을 방출하여 안정된 다른 종류의 핵으로 변환하려고 한다. 이때 방출되는 방사선에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있으며, 이와 같은 방사선을 방출하여 안정된 다른 종류의 원자핵이 되는 현상을 방사성 원소의 붕괴라고 한다.

알파 붕괴란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로, 질량수가 큰 불안정한 원자핵들이 질량수가 작은 안정된 원자핵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이때 방출되는 알파선은 헬륨의 원자핵인데, 이것은 두 개의 양성자와 두 개의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방사성 원소가 알파 붕괴를 하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가 각각 두 개씩 줄어들어, 원자 번호는 2만큼 감소하고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인 질량수는 4만큼 감소하게 된다. 92개의 양성자와 146개의 중성자를 가진 우라늄 238이 알파 붕괴를 하면 90개의 양성자와 144개의 중성자를 가진 토륨이 되는데, 이를 아래와 같은 핵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베타선을 방출하는 베타 붕괴는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지나치게 많은 불안정한 원자핵이 중성자의 수를 줄여 보다 안정된 원자핵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베타 붕괴를 할 때에는 원자핵에 있는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로 변환 다음, 양성자는 핵에 그대로 남고 전자만 외부로 방출된다. 이 경우 사라지는 중성자 대신 양성자가 하나 생기게 되므로 원자 번호는 하나 증가하지만 질량수는 변화가 없다. 55개의 양성자와 82개의 중성자를 가진 세슘이 베타 붕괴를 하면 56개의 양성자와 81개의 중성자를 가진 바륨이 되며, 그 핵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감마선을 방출하는 감마 붕괴는, 알파 붕괴와 베타 붕괴를 통해 새로 생긴 원자핵이 불안정한 들뜬 상태에 있을 때 안정된 상태로 변하기 위하여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감마 붕괴는 원자 번호와 질량수에 변화가 없고, 알파 붕괴나 베타 붕괴와 연동하여 발생된다. 즉, 알파선과 감마선이 함께 방출되거나 ㉠ 베타선과 감마선이 함께 방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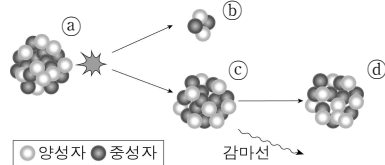
자연 방사성 원소는 납과 같이 안정된 물질에 이르면 더 이상 붕괴되지 않는다. 그러나 안정된 원자핵이라도 입자 가속기에서 나온 고속의 입자를 충돌시켜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어 주면 인공적으로 방사선을 방출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공적 방사성 원소는 쉽게 만들어 낼 수 있고 값도 비싸지 않아 과학적인 탐구나 산업, 의료 활동 등에 많이 활용된다. 그러나 방사선은 생명체를 통과하면서 전리(電離)* 현상을 일으켜 세포의 분열 저해, 돌연변이, 조직의 파괴 등 여러 가지 생물학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인과 달리 방사성 원소를 많이 취급하는 사람은 일정량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전리: 전하를 띠는 양이온 또는 음이온으로 됨.

4 위 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자연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② 방사성 원소의 붕괴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③ 방사선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인체에 유해한가?
- ④ 어떻게 하면 인공적으로 방사선을 방출시킬 수 있는가?
- ⑤ 인공적으로 방출된 방사선은 어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가?

5 다음은 어떤 방사성 원소의 붕괴 현상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가 된 것으로 보아, ㉠은 질량수가 큰 불안정한 원자핵이다.
- ② ㉠가 ㉡가 되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는 헬륨의 원자핵이다.
- ③ ㉠가 ㉡가 되면, 질량수는 원자 번호가 감소하는 것의 두 배만큼 감소한다.
- ④ ㉡가 불안정한 들뜬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로 붕괴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 ⑤ ㉠가 ㉡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붕괴되지 않는 안정된 물질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6 위 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한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퀴리 부인은 자연 방사성 원소인 라듐과 폴로늄을 발견하여 노벨상을 수상했지만, 이와 같은 방사성 원소를 지속적으로 실험하다가 결국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류는 방사선의 유해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일본의 원폭 피해 환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 연구를 통해 방사선에 의한 암 발생 증가의 구체적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100 밀리시버트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백혈병을 비롯한 암의 발병률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① 퀴리 부인은 방사선의 전리 현상 때문에 병을 얻게 되었군.
- ② 일반인은 자연 상태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대해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겠어.
- ③ 방사선에 의한 생물학적 변화 현상은 인공적 방사성 원소 때문에 생기기 시작했군.
- ④ 퀴리 부인은 자연 방사성 원소를 발견할 때 고속의 입자 가속기를 사용하지 않았겠군.
- ⑤ 병원의 방사선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정량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거야.

7 ㉠이 1회 발생하는 과정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성자의 수가 줄어든다.
- ② 전자 하나가 외부로 방출된다.
- ③ 중성자와 양성자의 외부 방출이 없다.
- ④ 원자 번호와 질량수가 변하지 않는다.
- ⑤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된다.

[8 ~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대 그리스인들은 '정의(正義)'를 우선적으로 '조화(調和)'로 받아들였다. '調'와 '和'는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잘 어울리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정의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게 된다. 더 나아가 그들은 대립자들의 조화가 정의를 가져온다고 생각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세계가 어둠과 밝음, 어른과 아이 등과 같은 대립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이들 사이에는 항상 갈등과 투쟁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대한 그들의 고민이, 정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기본적인 맥락이다.

아낙시만드로스가 말한 '우주의 질서'는 조화로서의 정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그는 우주를 구성하는 물, 불, 공기, 흙이라는 원소들이 비슷한 힘을 가지고 서로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그에 따르면 힘의 균형이 깨지면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데, 그것이 불의(不義)이다. 그런데 아낙시만드로스는 불의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미약했던 것들은 강해지고 막강했던 것들은 약해져서 다시 우주의 질서가 돌아온다고 보았고, 이것이 곧 우주가 정의를 되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히포크라테스의 '건강' 개념에도 조화로서의 정의 개념이 반영되어 있다. 그에게 건강은 몸 전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 사이의 조화였다.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요점은 병이 낫을 때의 치유 방법에 있다기보다는 식이요법을 통한 예방에 있다. 식이요법이란 몸의 조화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이다. 건강을 잃는다는 것, 즉 병을 얻는다는 것은 몸의 조화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조화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몸의 정의를 찾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었던 개념인 정의는 시간이 흐르면서 특정 분야인 윤리, 정치에 주로 적용되는 개념이 되었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파생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그 구성원들은 윤리적, 정치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념의 적용 양상이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정의가 지니고 있었던 조화라는 의미는 계속 이어졌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 개념을 윤리와 정치에 적용하였다. 윤리적 측면에서, 그는 정의가 지닌 조화의 의미를 '중용'이라고 규정한다. 중용은 양극단을 제외하고 그 사이에서 상황에 따른 최선을 선택하는 윤리적 탁월성이다. 예를 들면, 용감은 무모와 비겁 사이의 중용이고, 절제는 방탕과 무감각 사이의 중용이다. 즉 중용은 인간 덕성에서의 조화로움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정치적 측면에서, 그는 평등과 합법성이 결합된 '법 앞에서의 평등'으로 정의를 규정한다. 이는 사회의 조화로운 양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이 정의로우려면 법을 제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의로운 윤리를 바탕으로 한 행위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8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개념의 통시적인 변화를 설명하고, 앞으로 일어날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있다.
- ②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설정하고, 각각의 견해에 대해 사례를 들어 비판하고 있다.
- ③ 어떤 현상의 문제점을 상반된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고, 절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 ④ 특정한 이론과 관련된 개념들을 제시하고, 이론에 대한 근거들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있다.
- ⑤ 특정 개념의 적용 양상들을 제시하고, 각각의 양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9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대 그리스인들은 대립자들의 조화에서 정의가 비롯된다고 생각했다.
- ② 아낙시만드로스는 우주의 질서가 무너진 것을 불의라고 규정했다.
- ③ 아낙시만드로스는 원소들의 조화를 되찾게 하는 힘이 대립자들의 정의라고 규정했다.
- ④ 히포크라테스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그 예방을 중시했다.
- ⑤ 히포크라테스는 몸 전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 사이의 조화를 건강이라고 보았다.

10 윗글의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의 ㉠에 대해 보일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트라쉬마코스는 정의를 '강자의 이익'이라고 주장한다. 강자인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을 제정하는데, 피지배자들이 이에 복종하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 법을 위반하는 피지배자는 범법자로 처벌받는다.

- ① ㉠이 강조하는 법은 중용의 덕성을 보편화하고 있군.
- ② ㉠은 계층 간의 평등 실현을 위해 법을 제정하고 있군.
- ③ ㉠은 지배자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군.
- ④ ㉠이 규정한 정의 개념에는 피지배자들의 자발적 실천이 전제되어 있군.
- ⑤ ㉠은 개인의 정의로운 윤리를 바탕으로 법이 제정되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군.

[11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는 한쪽의 이익이 다른 쪽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모두의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적어도 한 사람의 상황이 나아져 만족도가 커진 상황을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파레토는 경제적 효용을 따져 최선의 상황을 모색하는 이론을 만들었고, 그 중심에는 '파레토 개선', '파레토 최적'이라는 개념이 있다.

같은 시간당 500원, 을은 1,000원을 받는 상황 A와, 같은 시간당 750원, 을은 1,000원을 받는 상황 B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파레토에 의하면 상황 B가 을에게는 손해가 되지 않으면서 갑이 250원을 더 받을 수 있기에 상황 A보다 우월하다. 즉 상황 A에서 상황 B로 바뀌었을 때 아무도 나빠지지 않고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좋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때, 상황 A에서 상황 B로의 전환을 파레토 개선이라고 하고,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황을 파레토 최적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파레토 최적은 서로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한계 또한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시간당 500원을 받고 을이 시간당 1,000원을 받는 상황에서 갑과 을 모두의 임금이 인상되면 이는 파레토 개선이다. 그러나 만약 갑은 100원이 인상되고 을은 10원이 인상되는 상황과 갑은 10원 인상되고 을이 100원 인상되는 상황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파레토 이론은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파레토 최적은 자유 시장에서 유용한 경제학 개념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특정한 한쪽의 이익이 다른 쪽의 손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이 같은 시간당 500원, 을은 1,000원을 받는 상황 A에서 같은 시간당 750원, 을은 1,000원을 받는 상황 B로의 전환에 대해 협의한다고 가정하자. 을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없고 만족도도 별로 나아지지 않는 상황 전환에 대해 별로 마음 내켜 하지 않을 것이나 갑은 250원이나 더 받을 수 있으므로 상황의 전환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갑이 을에게 자신이 더 받는 250원 중에서 100원을 주기로 제안한다면 을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상황 B로 전환하는 데 동의할 것이다. 이와 같이 파레토 최적은 (㉠)을/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가치 있게 평가받고 있다.

1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파레토 최적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고 있다.
- ② 파레토 이론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③ 파레토 이론의 한계와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 ④ 파레토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 ⑤ 파레토 최적의 상황을 파레토 개선과 관련지어 밝히고 있다.

12 윗글을 통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영희는 사과 6개, 철수는 배 6개를 갖고 있다. 철수는 사과에서 얻는 만족도가 배에서 얻는 만족도의 2배이고, 영희는 사과와 배에서 얻는 만족도가 동일하며 영희와 철수 모두 서로의 만족도를 잘 알고 있다.

이 상황에서 ㉠ 철수는 자신의 배 6개를 영희의 사과 6개와 교환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영희는 이에 반대하고, ㉡ 자신의 사과 중 3개를 철수의 배 6개와 교환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철수가 반대하여, 영희는 마지막으로 ㉢ 자신의 사과 가운데 4개를 철수의 배 6개와 교환하자는 제안을 했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제안을 철수가 수용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최초의 상황		㉠		㉡		㉢	
	사과	배	사과	배	사과	배	사과	배
영희	6개	0개	0개	6개	3개	6개	2개	6개
철수	0개	6개	6개	0개	3개	0개	4개	0개

- ① ㉠에 대해 영희가 반대한 이유는 철수의 만족도는 최초에 비해 2배로 증가하지만, 영희의 만족도는 최초와 같기 때문이다.
- ② ㉡에 대해 철수가 반대한 이유는 영희의 만족도는 최초에 비해 1.5배 증가하지만, 철수의 만족도는 최초와 같기 때문이다.
- ③ ㉢에 대해 서로 합의한 이유는 영희와 철수의 만족도 모두 최초에 비해 증가하였고,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 ④ 최초의 상황이 ㉠나 ㉡로 바뀌어도 모두 파레토 개선으로 볼 수 있다.
- ⑤ ㉠~㉢ 중 영희가 얻을 수 있는 만족도는 ㉢에서 가장 크며, 철수 역시 그러하기에 ㉢을 파레토 최적으로 볼 수 있다.

13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택의 기회가 많을수록 이익은 줄어드는 경우
- ② 경제 주체 간의 타협보다는 경쟁이 중요한 이유
- ③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상품 가격이 결정되는 상황
- ④ 합리적인 투자를 위해 이기적인 태도가 필요한 이유
- ⑤ 모두에게 손해가 되지 않으면서 효용을 증가시키는 상황

[14 ~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구는 약 1,600 km/h 속도로 자전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느끼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는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어떤 기차가 1,600 km/h 속도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달리는데, 이 상황을 우주에서 내려다보면 어떻게 보일까? 우주에서 바라보면 기차는 지구 자전과 빠르기는 같되 방향은 반대여서 결국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일찍이 갈릴레이는 속도는 상대적인 물리량일 뿐이므로 모든 운동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서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기준이 없는 속도는 물리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뉴턴은 물체의 운동에 대해 갈릴레이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하며 정지 상태와 등속 운동의 진정한 의미를 물었다. 운동하는 물체는 실제로 운동하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실제로 정지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한 뉴턴은 두 상태를 구별할 기준점이 필요했다. 즉 무엇에 대하여 정지해 있고, 등속 운동을 한다는 것인지를 탐구했다. 그래서 뉴턴은 우리의 오감으로는 느낄 수 없지만 어쨌거나 객관적으로 존재하면서 움직이지도, 변하지도 않는 공간을 상정하고 이를 절대 공간이라 명명했다. 뉴턴이 생각한 공간은 물리적인 실체로서, 운동하는 물체가 특정 시간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규정할 수 있는 절대적 배경이다.

[가] 뉴턴의 관점을 따른다면 마찰력이 없는 얼음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신고 제자리를 돌 때, 양팔이 바깥쪽으로 당겨지는 느낌을 받는 것은 절대 공간에 대하여 가속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장비를 동원하여 얼음판 전체를 회전시키고 우리는 그 위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한다면 얼음판과 우리 사이의 상대 운동은 이전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지만 우리는 절대 공간에 대하여 정지해 있으므로 양팔이 바깥쪽으로 당겨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뉴턴의 공간은 비유하자면 마치 모눈종이처럼 고정된 좌표계를 갖고 있어서 모든 운동은 그 좌표에서의 움직임으로 표현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그는 절대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물체의 운동을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절대 공간 개념에 회의를 품는 사람들도 있었다. 뉴턴은 공간이 물리적 실체라고 했지만 19세기에 ㉠ 마흐는 공간은 실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운동은 상대적으로 측정될 때에만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공간이란 한 물체와 다른 물체 사이의 상대적 위치 관계를 서술하는 용어이지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마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우주를 상상해 보라고 한다. 그곳에서 자신의 몸이 회전하고 있다면 팔과 다리에는 아무런 느낌도 전달되지 않고 몸이 회전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보았다. 즉 이 경우 회전 상태와 비회전 상태가 물리적으로 같은 상태라는 것이다. 마흐에 따르면 회전하는 몸에 느껴지는 힘은 주변에 널려 있는 물체의 분포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별이 단 하나밖에 없는 우주에서 회전한다면 아주 미미한 힘을 느끼고, 별이 지금보다 많은 우주에서 회전한다면 현재보다 큰 힘을 느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운동은 궁극적으로 우주 내에서 물질의 분포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 공간을 운동의 궁극적 기준으로 삼았던

뉴턴과 달리 마흐는 우주에 분포해 있는 물체들을 운동의 기준으로 삼았다. 마흐의 공간 개념은 아인슈타인이 공간과 우주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갈릴레이에게 운동은 기준에 따라 달리 서술될 수 있었다.
- ② 지구 위의 사람들은 지구가 회전하는 것을 지각하지 못한다.
- ③ 뉴턴의 공간 개념은 마흐에게 계승되어 더 발전된 모습이 되었다.
- ④ 뉴턴은 물체의 운동에 대해 갈릴레이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했다.
- ⑤ 마흐의 공간 개념은 아인슈타인이 우주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주었다.

15 [가]에 나타난 '뉴턴'의 생각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운동은 어느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의 이동이다.
- ② 운동을 정의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절대 공간이다.
- ③ 속도의 변화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들 간의 비교를 통해서만 감지될 수 있다.
- ④ 운동하는 물체와 정지한 물체는 각각 절대 공간에 대하여 운동하고 정지해 있다.
- ⑤ 절대 공간은 실제로 증명된 것이 아니지만 물리적인 실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16 ㉠의 관점에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밧줄의 양 끝에 매여 있는 두 개의 돌맹이가 우주 공간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면 밧줄은 팽팽하게 당겨질까?

- ① 어떤 조건에서도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질 것이다. 왜냐하면 회전 운동은 어떤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지각되기 때문이다.
- ② 어떤 조건에서도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주 내의 모든 천체들은 균질하게 분포하여 변치 않기 때문이다.
- ③ 어떤 조건에서도 밧줄이 느슨하게 당겨질 것이다. 왜냐하면 텅 빈 우주 안에서라면 회전 운동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④ 특정 조건에서는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질 것이다. 왜냐하면 회전하는 돌맹이들의 위치 관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 ⑤ 특정 조건에서는 밧줄이 느슨하게 당겨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주 안의 물질들의 분포 상태에 따라 운동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것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슬기와 재석은 200 km/h 속도로 주행하는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다. 그 사이 내내 슬기는 책을 읽었고 재석은 슬기 옆자리에 앉아 야구공을 위로 던졌다가 다시 받는 놀이를 계속 반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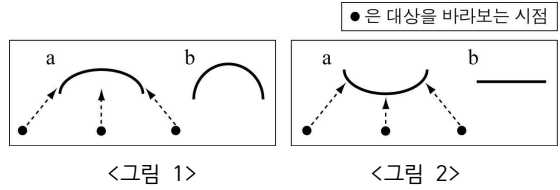
- ① 갈릴레이는 슬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슬기의 책의 이동 속도는 0 km/h라고 말할 것이다.
- ② 뉴턴은 절대 공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재석의 위치와 슬기의 이동 거리는 같다고 말할 것이다.
- ③ 뉴턴은 절대 공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슬기의 책은 운동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 ④ 마흐는 슬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슬기와 재석의 위치 관계는 변함이 없었다고 말할 것이다.
- ⑤ 마흐는 야구공을 기준으로 본다면 재석이 정지 상태에 있다고 말할 것이다.

[18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흔히 가까운 쪽의 대상은 크게, 멀리 있는 대상은 작게 표현하곤 한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정립된 일점원근법에 기초한 것이다. ㉔이 시대의 화가들은 3차원적 대상을 2차원적 평면에 정확하게 재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상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눈을 하나로 고정시킨 후, 보이는 장면을 평면에 그려 냈다.

그런데 ㉕러시아의 성화(聖畵) 화가들은 세속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들은 성경 이야기나 성스러운 신의 세계를 그렸는데, 이 그림들은 일점원근법과는 다른 표현 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러시아 성화에서는 인물과 사물이 사실적으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중요성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성스러운 존재를 형상화할 때는 사물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모습까지도 드러낸다.

또한 그들은 초월적 존재인 신이 세상의 곳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시선을 표현하다 보니 대상을 바라보는 시점은 어느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움직인다. 일점원근법에서와는 달리 하나의 그림 속에 여러 개의 시점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성화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탁자나 의자 등은 이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원형의 탁자를 성화에 그린다고 가정하자. 위에서 내려다보거나 밑에서 올려다보지 않는 한, 원형은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타원에 가깝게 보인다. 그 타원을 반으로 자르면 윗부분은 그림 1-a, 아랫부분은 그림 2-a와 같은 모양이 된다.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곳곳에 존재하므로, 앞에서 본 모양뿐만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에서 본 모습도 표현해야 한다. 이것들을 모두 합쳐 평면에 나타내려다 ㉖보니, 그 윗부분은 그림 1-b와 같이 더욱 구부러지게 된다. 같은 원리에 따라 타원의 아랫부분도 안쪽으로 굽히면, 윗부분과는 반대로 그림 2-b와 같이 편평하게 퍼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면 하나의 반원이 만들어지는데, 러시아 성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반원형의 탁자는 사실 원형을 표현한 것이다.

현재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표현은 왜곡으로 생각되겠지만, ㉗당시의 감상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그림에 표현된 인물과 사물의 형상이 본래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아울러 세상의 곳곳을 향하는 초월자의 시선이 자신에게도 미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성화의 감상을 통해 성스러운 신의 세계를 체험했던 것이다.

20세기 초에 러시아 성화를 처음 접한 ㉘서구의 미술사학자들은, 러시아 성화가 원근법이 없는 원시적인 표현 방식으로 그려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성화 화가들은 오히려 확고한 표현 체계를 갖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신의 성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 그들 고유의 표현 방식을 탄생시켰던 것이다.

18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대와 공간에 따른 예술의 차이
 - 이탈리아와 러시아 회화를 중심으로
- ② 러시아 성화의 표현 기법과 그 의미
 - 성스러움을 드러내는 방식
- ③ 러시아 성화의 신비로움
 - 현실성과 초월성의 이중주
- ④ 러시아 성화의 원리와 이해
 - 원근의 조화가 빚어내는 아름다움
- ⑤ 시점에 따른 회화의 변화
 - 원근법의 역사적 계승과 발전

19 <보기>에 제시된 '푸코'의 견해를 바탕으로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푸코는 르네상스에서 현대까지의 서구 사상의 역사를 '에피스테메'의 연속이 아닌 불연속, 계승이 아닌 단절, 진보가 아닌 반복으로 본다. 여기에서 '에피스테메'는 특정한 시대의 사상을 하나로 묶어주는 궁극적 원리를 뜻한다.

- ① ㉠의 에피스테메는 ㉢보다 '진보'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은 자신들의 에피스테메로 ㉠의 작품을 감상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 ③ ㉠과 ㉢은 서로 유사한 에피스테메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에피스테메의 '반복'으로 인해 ㉢은 ㉠의 작품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 ⑤ 지역적 차이를 뛰어넘어 ㉠의 에피스테메는 ㉢에게 '계승'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 위 글을 읽고 <보기>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이 그림은 예수(왼쪽에서 첫 번째)와 성모 마리아(왼쪽에서 두 번째)가 참석한 어느 혼인잔치 장면을 묘사한 러시아 성화의 일부이다.

- ① 이 성화를 본 당시의 감상자들은 인물들이 반원의 형태가 아닌 원형의 탁자에 둘러 앉아 있다고 이해했겠군.
- ② 탁자에 가려 보이지 않아야 할 왼쪽 첫 인물의 전신을 드러낸 것은 대상을 성스럽게 표현하려는 의도에서였겠군.
- ③ 탁자와 같은 사물과 인물들이 함께 그려져 있다는 사실에서, 화폭 안에 여러 개의 시점이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왼쪽의 두 인물에만 그려진 머리 주변의 후광은, 이들이 다른 인물에 비해 상징적으로 중요함을 드러내는 표현이겠군.
- ⑤ 탁자 앞에 있는데도 다른 인물에 비해 작게 표현된 하인들의 모습에서, 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군.

1. ④	2. ⑤	3. ①	4. ②	5. ④
6. ④	7. ⑤	8. ③	9. ①	10. ⑤
11. ⑤	12. ⑤	13. ④	14. ③	15. ①
16. ②	17. ⑤	18. ①		

2013년 10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A)

1

[정답 맞히기]

④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한다.
 → (가)에서 ‘산평이 알을 품고 빠꾸기 제철에 울건만’을 통해 고향은 예전과 그대로임을 알 수 있으며 ‘울건만’을 통해 청각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다. 또한 ‘오늘도 뉘 끝에 홀로 오르니 흰 점 꽃이 인성스레 웃고’에서는 화자를 향해 환하게 피어 있는 산속의 작고 흰 꽃이 시각적으로 연상된다고 볼 수 있다.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에서도 ‘풀피리 소리’를 통해 청각 이미지가 연상된다. (나)에서는 ‘감읍한 뒷산 나무들 자지러지게 잔가지를 흔들고 별꽃 서너 송이 고개 고덕이며 더욱 환하게 웃어주었다’에서 잔가지를 흔들는 뒷산 나무들의 모습과 고개 고덕이며 웃어주는 별꽃 서너 송이를 통해 시각 이미지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풀잎들은 잠에서 깨어 부스럭대고 바지런한 개울물들을 깨우러 가고 있었다’에서 부스럭대고, 개울물 등을 통해 청각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진술이다.

[오답 피하기]

① 수미상관을 통해 시상을 마무리한다.
 → (가)에서는 1연과 마지막 연에서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이라는 유사한 구조를 시의 첫 연과 마지막 연에서 확인할 수 있기에 수미상관을 통해 시상을 마무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나)에서는 (가)와 달리 수미상관이 드러나지 않는다.

②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한다.
 → (나)에서 ‘내 사는 동안 내내 위안이고 지혜이신 어른이시여’를 통해 화자가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가)에서는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③ 같은 어구를 되풀이하여 의미를 강조한다.
 → (가)에서 ‘고향에’가 1연 1행, 마지막 연 1행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 고향에 돌아왔음에도 고향을 예전처럼 정겹게 느끼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나)에서는 같은 어구를 되풀이하지 않고 있다.

⑤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드러낸다.
 → (가)에서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뇨’에서 ‘려뇨’는 의문의 의미가 담긴 종결 어미이기 때문에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과 관련해 설의적 표현을 사용해 주제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나)에서는 이러한 설의적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다.

2

[정답 맞히기]

⑤ ③과 ⑥의 괴리를 경험하게 된 화자의 내면세계를 나타낸다.
 → ‘③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⑥ 고향은 아니려뇨’를 통해 다시 찾아온 고향이 화자의 기억 속의 고향과는 혹은 화자가 마음 속에서 그리워하던 고향과는 다른 곳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⑥ 고향은 실제 고향이 아닌 화자의 마음 속의 공간으로서의 고향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화자가 실제 고향(③)과 마음속에서 그리워하던 고향(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괴리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머언 항구로 떠도는 [구름]’에서 화자가 자신의 마음을 먼 항구를 향해 떠돌며 방황하는 구름에 비유하고 있다. 따라서 구름은 1연 1행의 실제 고향(③)과 1연 2행의 마음속에서 그리워하던 고향(⑥)의 괴리를 경험하게 된 화자의 방황하는 내면세계를 나타내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3

[정답 맞히기]

① [A]: 시적 상황과 관련하여 화자가 자신의 과거를 원망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 <보기>를 통해 ‘그처럼 깨끗한 기도’가 자식들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를 가리키고 ‘만날 수 없으리’가 어머니의 죽음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담긴 화자의 주된 정서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일 것이기에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오답 피하기]

② [B]: ‘흰 대접’, ‘은은한 빛’, ‘흰빛’을 통해 ‘정한수’의 속성을 드러내어 어머니 기도의 정결함을 부각한다.

— < 지 문 > —
 어둠은 도둑걸음으로 졸졸졸 고여오다가 흰빛에 닿으면 화들짝 놀라 내뱉고는 하였다.

→ 경한수의 맑고 순수한 속성이 ‘흰 대접’, ‘은은한 빛’, ‘흰빛’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경한수의 이러한 속성은 경한수를 떠 놓고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드리고 있는 ‘어머니의 기도’의 정결함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기 때문에 적절한 진술이다.

③ [C]: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만물을 감응시킬 정도로 어머니의 정성이 지극함을 강조한다.
 → ‘감읍한 뒷산 나무들 자지러지게 잔가지를 흔들고 별꽃 서너 송이 고개 고덕이며 더욱 환하게 웃어주었다’에서 뒷산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별꽃 서너 송이(서너 개의 별들)가 반짝이는 모습을 나무들과 별들이 어머니의 정성에 감동을 받아 그리 한 것처럼 의인화 하여 표현하고 있다. 나무들과 별들의 이러한 모습은 그만큼 어머니의 정성이 지극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므로 이 부분과 관련해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만물을 감응(어떤 느낌을 받아 마음이 따라 움직임)시킬 정도로 어머니의 정성이 지극함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④ [D]: 화자의 방향과 이탈 심리를 사물을 통해 드러내고, 마르지 않는 '정한수'를 통해 어머니의 사랑과 포용력을 제시한다.

→ '촉촉하게 짜여진 어둠의 천 오래 입은 낡은 옷 되어 툭툭 실밥이 터질 때 야행에 지친 파리한 달빛'에서 '야행에 지친 파리한 달빛'은 야행을 통해 방향의 이미지를 '파리한'을 통해 방향 끝에 지치고 만 상태를 연상시킨다. 따라서 야행에 지친 파리한 달빛은 화자의 방향하는 심리를 드러내는 사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달아오른 몸 담가오기도 하였고 밤나무의, 그 중 실한 가지가 손 뻗어오기도 했으나 정한수는 줄지 않았다'를 통해 '야행에 지친 파리한 달빛'도 '서울행 기차의 목련 기적이 담가온 달아오른 몸'도 어머니는 사랑의 마음으로 한 없이 따뜻하게 (정한수는 어머니의 마음이기에 줄지 않는 정한수는 마르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과 포용력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안아주셨을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진술이다.

⑤ [E]: 부재하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장독대'를 '어머니'와 동일시하며, 삶의 위안자로서의 '장독대'에 인격을 부여한다.

장독대 내 생의 뒤뜰에 놓여 있는, 생활이 타서 갈증으로 목이 마를 때 흰빛 내밀어 권하시는

→ '화자가 표면적으로는 장독대에 대해 서술하고 있지만 장독대가 내밀어 화자에게 권하고 있는 흰빛은 어머니가 떠 놓은 정한수의 흰빛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장독대가 어머니와 동일한 의미임을 알 수 있다.

2010년 10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4

[정답 맞히기]

② (나)와 (다)에는 자연물과의 친밀감이 바탕에 깔려 있다. → 7번 문항의 <보기>를 통해, (나)에서 제 6수의 화자가 '바위'임을 알 수 있다. 제5수에서 서술된 화자의 말을 이어 받아, '바위'가 화자에게 말을 건네는 문답의 형식은 자연물인 '바위'에 인격을 부여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인격 부여'는 대상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다)에서는 좋은 화초다, '그' 등의 표현을 통해 글쓴이가 자연물인 화초를 친밀하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말 파초가 꽃을 피우면 열대지방과 달라 한 번 말랐다가는 ~ 나와 두 여름을 낚고'를 통해 자연물인 파초에 대한 글쓴이가 느끼는 친밀감을 확인할 수 있다.

5

[정답 맞히기]

④ '사람들'과 화자 모두 백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人嚮忘機立 사람들은 말하네, 기심(機心)을 잊고 서 있다고

→ 백로의 행동을 모두 지켜 본 화자의 입장에서 백로에 대한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기심을 잊은 것)은 분명 '겉모습에 속아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일 것이다. 이 부분은 백로의 모습을 모두 지켜본 화자가 백로의 겉모습에 속아 백로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 '사람들'과 화자 모두 백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답 피하기]

- ① '물고기'와 '새우'는 백로 입장에서 욕망의 대상이다. → 제목인 '여뀌꽃과 백로'를 참고 했을 때, 여울 앞에 서 있던 백로가 물속의 물고기와 새우를 보고 잡아먹으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설명이다.
② 백로는 '사람' 때문에 일시적으로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蓼岸遷飛集 여뀌꽃 핀 언덕에 도로 날아가 않았네

→ '도로'를 통해 '백로'가 본래 '여뀌꽃 핀 언덕'에 있었다가 여울로 내려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언덕에 도로 날아가' 않게 됐으니, 백로 입장에서, '사람' 때문에 물고기와 새우에 대한 욕망을 일시적으로나마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 ③ 백로가 '여뀌꽃 핀 언덕'에 서 있는 모습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心猶在灘魚 마음은 여울의 물고기에 있는데
[마음은 온통 물고기를 먹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한데]
人*忘機立 사람들은 말하네, 기심(機心)*을 잊고 서 있다고

→ 백로의 마음이 기심으로 가득한데도, 사람들은 여뀌꽃 언덕에 우아하게 서 있는 백로의 겉모습만 보고서, 백로가 기심을 잊고 서 있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

- ⑤ 백로가 '여울의 물고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기심'을 잊지 못해서이다. → 백로에게 있어서 물고기는 이익이 되는 대상이므로, 물고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백로의 이러한 모습은 백로가 '기회를 엿보아 이익을 취하려는 마음, 즉 기심'을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 백로가 '여울의 물고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기심'을 잊지 못해서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6

[정답 맞히기]

④ ㉓는 대상이 처한 상황, ㉔는 대상이 지닌 속성을 부각시킨다.

→ (가)에서 백로는 사람 때문에 물고기와 새우를 멀리 둔 채 언덕까지 오게 되었는데, 비까지 내리니 백로의 처지가 비참해졌다. 따라서 '가랑비'는 욕망의 대상을 눈앞에 두고도 그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백로의 안타까운 상황을 더욱 안타깝게 만드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 지 문 >

파초만은 은은히 빗방울을 통기어 주렴(珠簾) 안에 누웠으니 ~ 그 서늘함, 파초를 가꾸는 이 ㉞ 비를 기다림이 여기 있을 것이다.

→ '파초'는 워낙 키가 크고 입이 넓어서, 그것이 드리우는 '그늘'이 보는 이로 하여금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파초'의 이러한 속성은 '비'가 오는 날이면 앞에서 통기는 선명한 빗소리로 인해 마음까지 서늘하게 해주므로 '시원하고 서늘한 느낌을 준다'는 '파초의 속성이 '비'가 오는 날이면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진술이다.

7

[정답 맞히기]

- ⑤ <제8수>에서 '만고의 허다 영웅'에 '너'를 포함시킴으로써 바위의 고고함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 바위의 말을 통해 화자는 '만고의 허다 영웅'에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이 지닌 지조와 절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어 자신의 덕성을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자 비롯되었을 수 있다. 물론 이와는 전혀 다르게 화자는 스스로에게 지조와 절개 있는 삶의 태도를 다짐하고자 자신을 '만고의 허다 영웅'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해석을 해도, '만고의 허다 영웅'에 화자가 포함되는 사실이, '바위의 고고함'과는 관련이 없는 까닭에 위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제5수>에 사용한 설의법을 <제6수>에서도 구사하여 두 수의 긴밀성을 강화하고 있다.
- '내 어데 읊아 가료(읊아 갈 것인가)'의 '읊아 가료'를 통해 <제5수>에 이어 <제6수>에서도 설의법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제5수>와 <제6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설의법은 두 수가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② <제5수>와 <제6수>는 각각 바위의 위치에 대한 화자와 바위 사이의 의견 교환으로 볼 수 있다.
- <제5수>에서 화자는 바위를 '이제나 광야에 읊겨(종장 참고)'보고자 했는데 이에 대해 바위는 본 <제6수>에서 '내 어디로 읊아 갈 것인가'라며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은 적절하다.
- ③ <제6수>에서 화자의 제안을 거절하는 바위의 입장을 제시하여 세속에 대한 비판 의식이 강하게 느껴지고 있다.
- '광야로 읊기'고자 했던 <제5수>의 화자의 제안을 '바위'가 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위'의 이러한 거절은 '지조와 절개 있는 모습'조차 제대로 따르려 하지 않는 '세상이 수상한'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곧, '지조와 절개'를 따르려 하지 않는 당시의 세속에 대한 바위의 거절이며, 바위의 거절은 곧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화자의 비판이므로, 본 수에 대하여 '<제6수>에서 화자의 제안을 거절하는 바위의 입장을 제시하여 세속에 대한 비판 의식이 강하게 느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④ <제7수>에서 화자가 궁금하게 여긴 내용에 대해 <제8수>에서는 바위의 입장에서 풀어주고 있다.
- 바위가 '지조와 절개'를 비유적으로 의미하고 있기에, '바위를 보고 반겼던 사람'은 '지조와 절개를 지켰던 사람'을 의미한다. 바위가 지닌 지조와 절개를 소중히 여겨 이를 본받고자 했던 역사 속 인물이 과연 몇이나 되었는지(과연 누구누구 였는지)를 화자가 궁금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서', '엄자릉'은 <제7수>에서 화자가 궁금하게 여겼던 '바위를 보고 반겼던 만고의 허다 영웅'에 해당하므로, 위 진술은 적절하다.

8

[정답 맞히기]

- ③ 파초를 팔라고 권하는 앞집 사람을 언짢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 '앞집 사람'의 말이 '이익을 증시하는, 사람의 습관에 어긋난 말이 아니기에, 글쓴이는 자신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앞집 사람'이 답답해 할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글쓴이가 ㉠처럼 말한 이유는 그동안 파초에게 많은 정성을 들였고, 함께 보낸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자연물임에도 파초를 사람처럼 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파초가 곧 죽을 것이기에, 마음이 너무 아파 '앞집 사람'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도 하다. 물론 '생각하면 고마운 일이다', '그 혼자 드러나게 모진 사람은 아니다' 등 구절에서 보아 글쓴이가 파초를 팔라고 권한 앞집 사람을 언짢게 느낀 것은 아니므로 위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글쓴이가 파초에 많은 정성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 지 문 >

제일 좋은 거름이란 말을 듣고 선지는 물론이고 생선 씻은 물, 깻묵물 같은 것을 틈틈이 주었더니

- 글쓴이가 파초에 많은 정성을 들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글쓴이가 파초와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 화자 자신과 가까운 공간에서 '파초'가 자신과 함께 두 해를 보낸 사실을 강조하고 있기에('내 마당', '내 방 미닫이', '나와' 참고), 글쓴이가 파초와 함께 한 지금까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파초를 인격체처럼 대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지 문 >

→ 그가 한 번 꽃을 피웠으니
→ 이제 그 밭옥이 절정에 올라 꽃이 핀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 '그', '영광' 등의 단어를 통해 글쓴이가 파초를 인격체처럼 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파초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 '파초'가 곧 죽을 것이라는 '앞집 사람'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닌 까닭에, 글쓴이는 이제 파초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러한 생각에 마음이 아파 '눈이 뜨거워'진 것이다.

2009년 3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9

[정답 맞히기]

- ① '나'의 내면 의식 묘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나'가 등장하므로 소설의 시점이 1인칭이며, 1인칭 시점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감정, 상황에 대한 태도를 서술해야 내면 심리 묘사라 할 수 있다.

< 지 문 >

왜 그런 약한 생각을 하세요. 나는 겨우 그렇게 증얼거리려다가 목이 아프게 누르며 그 말을 참았다.

→ 위 부분을 통해서도 '나'가 최교수에 대하는 태도(위로를 해주려 했으나 하지 못 함)를 보여준다. 따라서 ①은 적절한 서술이다.

[오답 피하기]

- ② '나'의 공간 이동에 따라 서사의 속도가 달라지고 있다.
- 지문에서 공간 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병원에서 총장실로, 총장실에서 다시 병원으로 옮긴 것은 회상에서 다른 회상으로 넘어가는 장면이지 절대 공간이동이라 볼 수 없는 장면이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③ 동일한 사건이 선생님의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
- 동일한 사건이 다른 시각에서 재해석 되었다는 것은 이미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이 지문 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만약 '부정 입학' 사건을 황 교수가 동의했다고 생각하고 최 교수가 안 된다는 해석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관점으로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미를 담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늘어놓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③ ㄷ을 보니, 사람을 목적으로 취해 '(사람을) 맞아들이다'란 의미를 나타낼 수 있군.
- ㄷ에서 '손님'을 목적으로 취해 '손님을 맞아들이다'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④ '나'가 선생님의 생각을 따르게 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 지 문 >

아내의 그런 말을 들으며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아니, 가지 않겠어. 병든 자아와 정상적인 자아가 아냐. 수없이 많은 내가 내 속에 있어. 그의 죽음을 지켜보며 나는 또 얼마나 많은 자아와 싸웠던가. 때로는 두려웠던 나. 때로는 슬펐던 나. 때로는 그의 병榻를 보며 살아있는 자신이 기뻐던 나도 있었어. 그의 무너져 가는 몸을 보며, 건강에 조심해야지 하고 쥐가 천장을 갠아대듯 속삭인 나도 있었어.

→ '나'의 견해와 선생님의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나'의 체험과 선생님의 체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차되고 있다.

< 지 문 >

그때, 왜 그 생각이 떠올랐을까. 그것은 내가 본 처음이자 마지막 한 번의 선생님이었다. 그때 선생님은 대학의 보직을 맡고 있었다. 마침 약속이 있어서 학교 본관의 처장실로 찾아갔을 때였다. 그때 다른 단과 대학의 학장을 했던 원로 교수 하나가, 최명하 너 이놈 하고 고향을 치며 처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었다. 그는 아마 선생님보다 스무 해는 나이가 위였을 게다. 그를 향해서 그때 선생님이 소리쳤다. 학자라는 게 나잇값도 못하고! 당신하고 할 이야기 없으니 당장 나가! 놀라서 짐무실 한구석에 나는 서 있었고, 선생님은 그 노교수의 등을 밀어 밖으로 내몰았다. 문을 닫아걸며 선생님이 내뱉듯 말했다. 무슨 부정입학생 명단을 수첩에 적어 가지고 합격을 시키자니! 그걸 내가 못 한다고 잘랐더니 저 주책이야! 그때는 마침 입시철이었다. 것처럼 격렬하고 단호했던 선생님의 모습이 갑자기 왜 떠오르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때의 그 선생님, 또 다른 선생님의 자아를 생각했던 것일까.

→ 선생님의 이야기가 '나'에 의해 전달되기 때문에, 선생님의 추억 또는 체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차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10

[정답 맞히기]

- ▶ 보기 분석
-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현재 나는 최 선생님의 부고를 듣고 서울행 비행기를 탈지 말지 고민이라 했으니, 현재는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회상1은 그 때 최 교수에 대한 생각을 떠올린다 하니 그 내용이 회상 1과 관계가 있다 생각할 수 있고, 회상 2는 회상 1에서 노교수에게 혼이 난 장면이라 생각할 수 있다.

- ⑤ 황 교수에 대한 선생님의 말로 인해 ㉠에서 ㉡로 돌아온다.

< 지 문 >

"황 교수, 그 사람이 원데 나보다 이십 년을 더 살아.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나보다 이십 년을 더 살다니."

황 교수. 그분은 선생님과는 가까웠던 국문과 교수였고, 원로소설가였다.

"오늘 비행기는 전연 예약이 안 되네요. 그냥 비행장으로 나가 보실래요. 좌석이 있으면 탈 수도 있을 테니까요."

아내의 그런 말을 들으며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아니, 가지 않겠어. 병든 자아와 정상적인 자아가 아냐.

→ 황 교수에 대한 최 교수의 말 다음에 아내의 말이 이어지고 그 다음 그는 현재로 돌아와 최 교수에게 가지 않겠다는 말을 하게 된다. 즉, 최 교수의 말이 아닌 아내 때문에 현재로 돌아왔다 생각할 수 있으므로 ㉓가 정답이다.

[오답 피하기]

- ① ㉒는 선생님의 부고를 들은 후의 시간이다.
→ 위 보기 분석에 따라 현재는 앞부분의 줄거리와 마지막 두 문단의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나'는 최 교수의 부고 소식을 들었다 했으므로, ①은 오답이다.
- ② ㉒는 선생님의 부고를 들은 후의 시간이다.
→ 회상 1은 현재에서 회상한 장면, 즉 '나'가 선생님의 병문안을 간 장면이라 생각할 수 있다.
- ③ ㉒는 선생님이 대학에서 보직을 맡고 있을 때이다.
→ 회상 2는 회상 1에서 최 교수가 한 회상으로, 최 교수가 황 교수에게 부정입학을 거절한 상황을 회상한 것이다. 여기서 황 교수가 같은 대학 본관에서 부정입학을 권유한 것으로 보아 둘 모두 같은 대학의 교수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지문에서도 대학의 보직을 맡고 있다고 했다.
- ④ ㉒의 선생님의 모습이 ㉒를 떠올리게 한다.
→ '그때 왜 그 생각이 떠올랐을까. 그것은 내가 본 처음이자 마지막 한 번의 선생님(최 교수)였다.' 부분을 통해 죽어가는 선생님을 통해서 선생님의 과거의 모습을 회상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11

[정답 맞히기]

▶ 보기 분석

— < 지 문 > —

아내의 그런 말을 들으며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아니, 가지 않겠어. 병든 자아와 정상적인 자아가 아냐. 수없이 많은 내가 내 속에 있어. 그의 죽음을 지켜보며 나는 또 얼마나 많은 자아와 싸웠던가.

- 타인(최 교수) = 거울 - 자신(나)
이 관계를 통해 자아의 삶의 본질에 대한 사색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 ⑤ '자신 속에 아무도 살아 있지 않다'고 느낀 것은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마지막 문단, 아내와 그런 말을 들은 후 그는 최 교수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최 교수에게 가지 않으며 마지막에 자신 속에 아무도 살아 있지 않다고 느끼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전 지문에서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았던 최 교수에 대한 생각을 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로 '나'의 새로운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란 생각을 할 수 없으므로 답은 ⑤이다.

[오답 피하기]

- ① 거울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자신'은 '또 다른 나'에 해당 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 보기에 의하면 타인을 통해 자아의 삶의 본질에 대한 사색으로 이어진다, 즉 거울(타인)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생각할 수 있다. 만약 거울 속에 '또 하나의 자신'이 있다면 이는 또 다른 나, 또 다른 자아라 생각할 수 있다.
- ② 선생님은 '나'가 삶의 본질에 대해 사색하게 하는 '타인의 얼굴'로 볼 수 있다.
→ 보기 분석 참조, 그렇다면 최 교수(선생님)이 자신의 삶을 사색하게 하는 '타인의 얼굴', 즉 거울이라 생각할 수 있다.
- ③ '사막'은 삶의 본질에 대한 '나'의 인식과 내면을 보여 주는 상징적 이미지라 할 수 있다.

— < 지 문 > —

사막 같았다. 비를 맞고 있는 집과 나무와 아스팔트 포장인 골목을 바라보았다. 사막. 순간 그는 자신 속에 아무도 살아 있지 않다고 느꼈다. 어떤 모습의 그도.

- 사막을 통해 자신에게서 '자신 속에 아무도 살아 있지 않다고 느꼈다.'를 느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 사막에서 자신의 내면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사막이 자신의 본질(내면과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미지)이라 할 수 있다.
- ④ '나'가 '그'와 대화를 하는 행위는 자아와 삶의 본질에 대해 사색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 나가 그와 대화를 하는 행위는 타인과 나가 관계를 맺고 있다 생각할 수 있고 이는 보기에 의해 자아와 삶의 본질에 대해 사색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2

[정답 맞히기]

- ⑤ ㉒ : 삶에 대한 선생님의 초연한 태도를 드러낸다.

— < 지 문 > —

메마른 발을, 여윈 발을 당겨 앉은 자세를 바꾸며 그때 선생님이 중얼거렸다.
"황 교수, 그 사람이 뭔데 나보다 이십 년을 더 살아.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나보다 이십 년을 더 살다니."
황 교수. 그분은 선생님과 가까운 국문과 교수였고, 원로 소설가였다.

- 이후에 서술된 내용에서 자신을 꾸짖은 황 교수를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최 교수가 삶에 대한 초연적 자세를 보였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 피하기]

① ㉠ : 선생님의 병세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 준다.

— < 지 문 > —

→ 그는 응접실로 나오지도 못하고 ㉠안방에 딸린 침구 위에서 나를 맞았다.

→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투병 중이던 최 교수의 부고를 듣고

→ “끊임없이 싸워. 정상적인 자아와 병든 자아가 이십사 시간을 싸워. 이게 나야. 내가, 두 개의 내가 살아 있어. 내가 나를, 정상적인 자아가 병든 자아를 두 시간만 재워 놓자. 그러면서 잠이 들어. 여덟 시에 깨우자. 그러면서 살아. 병든 자아를 달래서 약을 먹이고, 병든 자아에게 사정해 가며 물도 몇 모금 먹고……”

→ 응접실에서 일어서서 자신의 제자를 환대하지 못하고 침구에 누워서 맞이했다는 장면과 이후에 서술되는 ‘병든 자와’, 교수의 부고를 통해 교수가 회상 1의 장면에서 굉장히 증대한 병을 앓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② ㉡ : 지난날 선생님의 신중하고 철저했던 삶을 나타낸다.

— < 지 문 > —

“그렇겠지. 막살아왔다면,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왔다면, 어떻게 든 살아보겠다고 무슨 짓이든 하겠지. 그러나…… 난 그렇지가 못하잖아. 그렇게 막살지도 못했잖아.”

㉡얼음 조각을 하듯 그렇게 사셨을 것이다.

→ ‘그렇게 막살지 못했지’, ‘무슨 짓이든 하겠지’라는 말을 통해 교수가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을 못 한, 즉 자신이 철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고 이러한 삶을 보고 ‘나’는 ‘얼음 조각을 하듯 사셨다’고 했다.

③ ㉢ : ‘검고 컸던 선생님의 눈’과 대비되어 선생님의 심신의 변화를 나타낸다.

— < 지 문 > —

㉢이미 노오랄게 물들어 있는 선생님의 눈을 나는 가만히 바라 보았다. 병이 저렇게 만든 것일까. 검고 컸던 선생님의 눈. 우리는 이다지도 무력한가. 우리가 무엇을 이룩하겠다고. 무엇을 남기겠다고 매일을 고단하게 살았던 말인가. 메마른 입술을 적시며 선생님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길이 커튼이 열려진 창에 가 멎었다. 텅 빈 하늘이 거기 가득했다.

→ 첫 번째 문장을 ‘검고 컸던 선생님의 눈, 병이 저렇게 선생님의 눈을 이미 노랗게 물들어 있는 눈으로 만든 것인가’로 바꿀 수 있다. 이를 통해 노란 눈과 검은 눈이 선생님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바뀌었다는 것(대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 : 격렬하고 단호했던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 준다.

— < 지 문 > —

선생님은 그 노교수의 등을 밀어 밖으로 내몰았다. ㉣문을 달아걸며 선생님이 내뱉듯 말했다. 무슨 부정입학생 명단을 수첩에 적어 가지고 합격을 시키자니! 그걸 내가 못 한다고 잘랐더니 저 주책이야! 그때는 마침 입시철이었다. 것처럼 격렬하고 단호했던 선생님의 모습이 갑자기 왜 떠오르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 문을 달아들며 최 교수가 황 교수의 제안을 거절하고 나서 나는 ‘격렬하고 단호했던 선생님’이 떠오른다고 서술했다. 이를 통해 이때의 선생님을 ‘나’는 격렬하고 단호한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3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공통)

13

[정답 맞히기]

④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이 작품은 매화에 대한 화자의 반응을 부각하고 있으며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대상에 대해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빙자옥질’, ‘아치고절’을 통해, 화자가 매화를 훌륭한 인품을 지닌 사람에 비유하고 있음을, 즉 매화를 예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대상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황혼(黃昏)에 달이 오니 그림자도 생긱거다’를 보면 해질녘에 달이 떠오르고, 그 달빛을 받아 매화의 그림자가 생기는 모습이 시각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한다. 또한 ‘청향(淸香)이 잔(蠟)에 뿜스니’는 매화의 은은한 향이 자연스럽게 후각을 자극하는 부분이다.

③ 영탄적 표현으로 화자의 감흥을 표출하고 있다.

→ ‘눈 기약(期約) 능(能)히 직켜 두세 송이 푸엿구나’두세 송이 피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두세 송이 피었구나’라는 영탄적 표현을 활용함으로써, 매화가 꽃을 피운 일에 대한 화자의 감흥이 잘 전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빙자옥질(氷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에서 ‘네로구나’의 ‘~구나’를 통해, 영탄적 표현을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⑤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얻고 있다.

→ 이 작품을 ‘음보’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각 행이 규칙적으로 4음보를 반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에 적절한 진술이다.

14

[정답 맞히기]

- ③ <제3수>에서 '눈'과 '달'의 조응이 이루어진 후에야 화자와 '매화' 사이에도 조응이 일어나고 있다.
- 눈 속의 매화가 은은한 향기를 내며 곧 달이 떠오를 하늘을 향해 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자는 매화가 달과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식으로, 즉 매화와 달을 조응 ('조응'은 '둘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 또는 말과 글의 앞뒤 따위가 서로 일치하게 대응함'이라는 뜻) 시키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3수의 조응 관계는 '눈과 달의 조응'이나 '화자와 매화 사이의 조응'이 아닌, '매화와 달의 조응'이기 때문에 위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제2수>에서 화자는 '어리고 성근 매화'가 꽃을 '두세 송이' 피운 것을 '눈'과의 기약을 지킨 결과라고 여기고 있다.
- 매화가 꽃을 피우는 것은 분명 자연 현상일 것이다. 그럼에도 화자는 매화가 꽃을 피운 일을 '눈이 오면 피겠다던 자신의 약속을 매화가 지킨 결과'로 '매화'와 '눈'이 조응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제2수>에서 화자가 '촉 잡고 갖가이 사랑'하는 행위에 매화가 향기를 내어 조응하고 있다.
- 매화의 향기가 퍼지는 것 또한 매화가 꽃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통의 자연 현상일 것인데, 화자는 자신의 감상 행위에('촉 잡고 갖가이 사랑할제') 조응하여 매화의 향기가 퍼지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제4수>에서 '달'이 뜨자 매화가 '그림췌'를 나타내고, 화자의 '잔'에도 매화의 '청향'이 차오르고 있다.
- 달이 뜨고, 그 달빛을 받아 매화의 그림자가 생기며, 매화의 향기가 화자의 앞에 놓인 술잔으로 퍼지는 일은 모두 개별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들일 것이다. 그럼에도 화자는 이 현상들이 모두 조응 관계 속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위 진술은 적절하다.
- ⑤ <제5수>에서 화자는 '합리의 즈든' 매화가 일어나 향기를 내는 것은 '황혼의 돛는 달'을 맞이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 방 안에 가만히 놓여 있던 매화에게서 화자는 문득 은은한 향을 맡게 되었는데, 그 순간 하늘을 보니 달이 떠 있었을 것이다. '매화에게서 향기가 나는 일'과 '달이 떠오르는 일'은 분명 서로 무관한 자연 현상일 것이다. 하지만 화자는 이를 독립적인 자연 현상으로 서술하지 않고, '달이 뜨면 향기를 퍼뜨려 달을 맞이할 것임'을 매화와 달이 서로 약속을 했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2015년 4월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B)

15

[정답 맞히기]

- ① 배경 묘사를 활용하여 특정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 지문 내에 배경묘사가 없으며, 특정 인물의 심리는 다음과 같이 서술자의 논평으로 드러나 있다.

— < 지 문 > —

상이 진노하샤 급히 한영을 잡아들여 엄히 국문하시니~

[오답 피하기]

- ② 특정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와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 지 문 > —

태자의 나이 구세라. 총명하여 백사를 무불통지하니, 일세 성군이 될지라~

- 서술자는 태자에게 일세성군이 될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③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서사를 빠르게 전개시키고 있다.
- 장면 전환이 잦아지면 진행 속도가 빨라져 서사의 진행 또한 빠르게 된다. 위 지문은 태자궁, 경화문 밖, 황화문 밖, 귤내 등 빈번한 장면 전환이 일어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④ 대화를 통해 약인의 교활한 면모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 4문단부터 "내 들으니 정렬부인이 만삭에 낙태하여 위급하다 하더이다."의 내용을 보면 분명 공주는 자신이 준 약에 독을 타고도 태자에게 독약을 주려 했고, 또한 간신들에게 태자를 죽인 후 계략이 다 짜여져 있는 것으로 보아, 공주는 태자를 계획적으로 암살하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화를 통해 약인(공주)의 교활한 면모가 드러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⑤ 동일한 사안에 대한 두 인물의 상반된 진술이 드러나 있다.
- 공주는 양산군이 태자를 독살했다 주장하고 김응철은 태자를 독살한 사람은 공주라 주장하므로 동일한 사안(태자의 승하)에 대한 두 인물(공주와 김응철)의 상반된 진술이 드러나 있다.

16

[정답 맞히기]

② 적대자는 B의 동조자에게 '부마의 죽음'을 막기 위해 주인공을 해칠 것을 지시한다.

→ 적대자(공주)는 경화문 밖에서 주인공(양산군)을 죽일 것을 지시한다. 그러나 전여선의 죽음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 태자를 죽인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 죽이려고 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 피하기]

① 주인공은 '태자의 죽음'을 알게 된 후 A로 이동하게 된다.

〈 지 문 〉
“태자가 졸지에 승하시니이다.”
할 즈음에 천자가 들으시고 대성통곡(大聲痛哭)하여 양산군을 부르샤 한가지로 태자궁으로 들어가시는지라.

→ 주어진 문장을 보더라도 양산군이 태자의 죽음을 알게 된 후 천자의 부름을 받아 태자궁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조력자는 '태자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입궐하지만 C에서 기다리던 동조자에 의해 위기를 맞게 된다.

〈 지 문 〉
김응철이 태자가 승하하고 궐내에 대변(大變)이 났음을 듣고 크게 놀라 황극전(皇極殿)에 들어오더니, 황화문 밖에 이르러 보니, 도총장군 정한영이 품속으로 일봉서(一封書)를 내어주거늘, 응철이 보고 수상히 여겨 수문장(守門將)더러 문왈,
“그대 무슨 서간을 받으뇨?”
수문장이 대왈,
“한영이 주기로 받았나이다.”
하고 손을 들어서 북(北)을 가리키니, 북병(伏兵)이 이에 응하여 내달아 응철을 에워싸고 죽이려 할새, 동령장군 호동과 우승상 조선이 들어오거늘, 응철이 한칼로 수문장을 베고 그 서간을 앗으니, 북병이 다 흩어져 달아나더라.

→ 조력자(김응철)는 태자의 승하 소식을 듣고 궐로 가던 중 수문장(동조자)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적대자는 D에서 '태자의 죽음'과 '부마의 죽음'을 모두 주인공 탓으로 돌린다.

〈 지 문 〉
공주가 태자를 독살하였으나 부마가 죽고 의논할 사람이 없으니 정히 대답하더니, 일계를 생각하고 궐내에 들어가 울며 상께 아뢰니,
“양산군을 성상이 태산 같이 믿으시나, 신첩이 자세히 듣자오니 양산군이 환자(宦者)로 더불어 동모(同謀)하여 먼저 태자를 독살하고 천자의 지위를 도모하다가, 부마가 알고 들어오매 항상께는 미처 범치 못하고 먼저 애매한 부마를 해(害)하니이다.”

→ 공주(적대자)는 태자의 죽음과 부마(전여선)의 죽음이 양산군(주인공)과 환관들의 모의와 연관되어 있다 황제에게 말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주인공은 D로 이동하여 '태자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을 밝힌다.

〈 지 문 〉
상이 들으시고 반신반의(半信半疑)하샤 결정을 유보할 즈음에 양산군이 들어오거늘, 상이 문왈,
“경이 어디로 갔더뇨?”
양산군이 태자의 급하심을 보고 회생하실 약을 구하러 갔던 일을 아뢰고, 즉시 환약(丸藥)을 내어 드린 후 천자와 한가지로 태자궁에 들어가 태자를 뵈오니, 승하하신 지 오래되 조금도 생시나 다름이 없는지라. 즉시 약을 받들어 태자의 입에 넣으니 이윽고 호흡을 통하여 회생하시거늘, 상이 태자의 환생함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샤 왈,
“경의 태산 같은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으리오.”

→ 주어진 지문의 내용을 통해 양산군(주인공)은 궐 내로 들어와 황제에게 자신이 태자를 살릴 약을 구했다는 사실을 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⑤는 정답이 아니다.

17

[정답 맞히기]

⑤ '한영'을 '잡아들여 엄히 국문'하는 장면에서 독자들의 심리는 급속히 이완되어 안정감을 찾겠군.

→ 신이한 존재의 개입에 의한 갈등 해소는 독자들의 긴장감을 이완시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 지 문 〉
상이 진노하샤 급히 한영을 잡아들여 엄히 국문하시니, 한영이 아뢰는 말이 또한 공주의 말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지라. 상이 크게 의심하시더니 김응철이 아뢰길,

→ 보기에서 독자의 긴장감이 이완되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경우는 '신이한 존재의 개입에 의한 갈등 해소'이다. 한영을 고문할 때 신이한 존재는 개입을 안 할뿐더러 한영이 공주의 진술과 똑같이 하면서 양산군은 더 위기에 처할 뻔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긴장감을 이완시킨 장면은 화산도사가 양산군에게 회생의 약을 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천자의 지위를 빼앗으려는 행위는 인물 간의 애정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확장된 것이자 도식성이 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군.

→ 부마와 공주가 천자(황제)의 지위를 빼앗으려는 것은 애정 문제(결혼한 사이)가 정치적 문제(황위 찬탈)로 확장된 것이자 도식성(영웅의 위기 발생)이 강화된 것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② '독약'을 태자의 '탕약에 타'는 대목에서 독자들은 긴장하면서도 이후 전개될 내용에 흥미를 느낄 수도 있겠군.

〈 지 문 〉
부마 전여선과 공주가 양산군을 시기하여 다시 해하고자 하되 온갖 계교를 다 써도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함이라. 서로 의논하되, 태자(太子)를 죽이고

→ ㉔를 답으로 선택했다면 위기 상황은 찾았으나 반복이 되는 것을 못 찾았기 때문에 택했을 것이다. 그러나 태자를 시해하려 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양산군을 시기하고 음해하기 위해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태자를 시해하려는 시도에서 양산군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즉 위기의 반복이 이어질 것이라 추론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신이한 존재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은 영웅 소설의 환상성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군.

< 지 문 >

응철이 그 서간을 양산군께 드리니 양산군이 보고 대경낙담하여 정신을 진정치 못하더라. 양산군이 급히 본부(本府)로 돌아와 목욕재계하고 종남산을 향하여 삼 일을 지성으로 기도하니, 화산도사가 구름을 타고 내려와 양산군의 손을 잡고 왈

→ 화산 도사가 구름을 타고 내려왔다 했으므로 신이한 존재라 할 수 있고, 신이한 존재가 구름을 타고 내려온 것은 초월적 존재의 개입이고 이는 소설의 환상성을 드러낼 수 있다 보기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위기 상황을 '미리 짐작'하고 '회생하는 약을 가져'온 행위는 초월적 존재의 능력이 부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군.

< 지 문 >

이제 태자가 별세하시고 궐중에 대변(大變)이 난 줄 내 이 미 짐작하고 회생하는 약을 가져왔으니

→ 태자가 승하하는 것을 미리 아는 것, 사람을 회생시킬 수 있는 약을 가져오는 것은 초월적 존재의 능력이 부각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18

[정답 맞히기]

① ㉑을 통해 인물은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되고, ㉒을 통해 인물에 대한 다른 인물의 신뢰가 유지된다.

→ 김응철이 일봉서를 빼앗고 양산군에게 전한 후에, 응철이 황제에게 공주가 태자를 시해하려했다 할 때, 응철이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때는 응철이 등장했던 단 한 장면, 응철이 서간을 빼앗은 후 양산군에게 전했던 때에 알게 된 것이다.

→ 또한 양산군이 한영과 공주의 발언 때문에 황제의 신뢰를 잃어 버릴 찰나에 돌아와서 환약으로 태자를 살리자 황제는 양산군이 자신의 편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오답 피하기]

② ㉑을 통해 인물은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게 되고, ㉒을 통해 인물은 과거의 상황을 떠올리게 된다.

→ 일봉서를 통해 과거의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는 것이지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다. 또한 환약을 통해서 과거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나 말은 없으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③ ㉑을 통해 인물의 과거 행적이 드러나게 되고, ㉒을 통해 상황에 대한 인물의 판단이 유보된다.

→ 일봉서를 통해 공주(인물)의 과거 행적이 드러나게 된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환약을 통해서 태자를 살리게 되면서 황제는 역모에 가담한 공주 무리들을 처벌하게 되면서 환약이 판단을 유보시키는 역할이 아닌 판단을 확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④ ㉑을 통해 인물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고, ㉒을 통해 인물이 모함에서 벗어나게 된다.

→ 일봉서를 통해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는 것이지 오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환약을 통해서 태자를 살리면서 공주와 한영의 말 때문에 있었던 의심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환약을 통해 모함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그러나, 일봉서에 대한 진술이 틀리므로 ④는 정답이 아니다.

⑤ ㉑을 통해 인물 간의 대립은 완화되고, ㉒을 통해 인물 간의 긴장이 고조된다.

→ 일봉서를 통해 응철과 양산군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다.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양산군이 공주의 죄를 용서해주면서 인물 간의 대립이 완화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봉서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면서 공주의 죄목이 밝혀지므로 인물 간의 대립이 완화되기보다 오히려 심화되므로 일봉서에 대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환약을 통해서 태자가 치료되면서 황제가 양산군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면서 긴장관계는 완화되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수능 국어와 교육', 읽다, 그리고 사유하다
국어강사 심찬우

1. ④	2. ②	3. ②	4. ③	5. ⑤
6. ③	7. ④	8. ⑤	9. ③	10. ⑤
11. ②	12. ⑤	13. ⑤	14. ③	15. ③
16. ③	17. ⑤	18. ②	19. ②	20. ③

2013년 3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A)

1

[정답 맞히기]

- ④ 환경론자들은 자연 파괴로 인한 폐해보다는 인간 삶에 닥친 위기에 더 관심이 많았다.
→ 환경론자들은 자연 파괴로 인한 폐해와 인간 삶에 닥친 위기가 과학 기술주의로 인해 둘 다 일어난 것이라 했을 뿐 둘 사이의 우위를 두지 않았다.

[오답 피하기]

- ① 근대 철학의 지배적 이념은 헤겔 이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 1문단에서 '근대 철학은 헤겔 이후 도전에 직면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이다. 따라서 적절한 설명이다.
- ② 환경론자들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근대 철학의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하였다.
→ 2문단에 따라 근대 철학의 이분법적 사고는 주체-대상, 인간-자연인데, 환경론자들이 근대 철학을 비판하였으므로 이분법적 사고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③ 과학기술주의자들은 자연을 수량화와 계산을 통해 지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았다.
→ 3문단에서 '과학기술주의는 근대 철학의 영향으로 자연을 수량화와 계산을 통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창고로 바라보았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⑤ 하이데거는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 4문단에서 '이러한 환경론자의 비판에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 현대 철학자로 하이데거를 들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2

[정답 맞히기]

- ② 근대 철학에서 ㉠은 인간을 대상화하면서 생성되었다.
→ 4문단의 그 문장에 따르면 계산적 사유를 도구로 존재자를 인간의 지배 대상으로 만든 것이다. 즉 '존재자=대상'이며, '주체=인간'인데, ㉡는 계산적 사유를 도구로 인간을 존재자로 만들었다 하였으므로 뒤 구절의 순서가 바뀐 틀린 설명이다.
→ 하이데거가 말하는 계산적 사유는 환경론자들이 말하는 과학기술주의와 매우 유사하다. 2문단 '자연을 인간에 의해 인식되고 지배되는 대상으로 파악'과 4문단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인간에 의해 인식되고 파악되고 지배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는'의 유사성을 확인해보자.
→ '계산적 사유'와 '이성'을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 '계산적 사유로서의 이성' 자체를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오답 피하기]

- ① 근대 철학의 이성 중심주의는 ㉠에 근거하고 있다.
→ 4문단 세 번째 문장인 '이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인간에 의해 인식되고 파악되고 지배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는 계산적 사유에 근거한다.'에 나와 있다.
 - ③ ㉠으로 인해 ㉡의 본원적 존재 의미가 상실되었다.
→ 4문단 마지막 문장에 이로 인해 존재자의 본원적인 존재 의미가 사라져 버렸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④ ㉡의 본원적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을 극복해야 한다.
→ ㉡의 의미를 회복한다는 것은 ㉡의 의미가 낮아졌다는 것인데 이는 4문단 마지막 문장 중 단어 '전락'에 있다. ㉠ 때문에 낮아졌으니 ㉡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적절한 설명이다.
 - ⑤ ㉡은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연관성과 유일성을 갖는다.
→ ㉡은 관계 그 자체이면서 그 속에서 연관성과 유일성을 갖는 것이다.
- ▶ 독해 Tip
→ ㉠과 ㉡이 있는 지문의 문장이 독해하기 어렵다. '존재자'라는 생소한 단어가 이해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앞선 환경론자과 과학기술주의의 내용인 '자연'으로 치환해서 이해해보자.
→ <계산적 사유로서의 이성은 모든 존재하는 것 자연을 '주체'인 인간의 지배 대상으로 전락시켰으며, 이로 인해 존재자 자연의 본원적인 존재 의미는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이 범위를 자연에서 모든 것으로 확장시키면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간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싫고 각자 존재하는 의미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3

[정답 맞히기]

- ▶ 보기 분석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그러나'다. 이는 충동과 욕망 같은 무의식이 단일성과 통일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며, 프로이트의 주장이 근대 철학에 반한다는 것이다. '주체인 인간은 근대 철학이 정의내리는 것과 달리 완벽하지 않고 빈틈이 많다.'와 같이 단순히 이해해볼 수도 있다.

- ② 근대 철학의 '주체' 개념을 비판하는 논거로 삼는다.
→ 적절한 선지이다.

[오답 피하기]

- ① 하이데거의 '존재자' 개념의 타당성을 확보한다.
- ③ 근대 철학에서 '주체' 개념이 변화해 온 과정과 배경을 밝힌다.
→ 두 선지 모두 활용하기 부적절하다.
- ④ 근대 철학의 관점에서 하이데거의 비판을 재반박하는 논거로 삼는다.
→ 하이데거와 프로이트는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데, ④는 이와 반대되는 설명이므로 지문과 관련 없이 그 자체로 틀린 자료이다.

⑤ 하이데거의 '새로운 사유'가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에 근거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 새로운 사유와 무의식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2년 10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4

[정답 맞히기]

③ 방사선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인체에 유해한가?
→ 방사성 원소의 세 가지 붕괴 유형과 방사성 원소가 붕괴될 때 방출되는 방사선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이 글에서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 현상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때 방출되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중 어떤 것이 인체에 더 유해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자연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내용일치 문제는 해당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문장에서 찾을 수 있는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다.

■교재 '생각하며 글 읽기'
▶화제 제시 & 논지의 제한(이/그/저)

< 지 문 >

자연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원자핵은 안정된 상태이지만, 원자 번호가 83을 초과하면 양성자 사이의 전기적 반발력이 커져 불안정해진다. 이러한 원자핵은 자발적으로 방사선을 방출하여 안정된 다른 종류의 핵으로 변환하려고 한다. 이때 방출되는 방사선에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있으며,

→ 정의 : 이와 같은 방사선을 방출하여 안정된 다른 종류의 원자핵이 되는 현상을 방사성 원소의 붕괴라고 한다.

② 방사성 원소의 붕괴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지문에 순서대로 알파 붕괴(2문단), 베타 붕괴(3문단), 감마 붕괴(4문단)가 나와 있다.

④ 어떻게 하면 인공적으로 방사선을 방출시킬 수 있는가?
→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교재 '생각하며 글 읽기'
▶새로운 화제 제시 & 열린반대 & 논지제한(이/그/저)

< 지 문 >

자연 방사성 원소는 납과 같이 안정된 물질에 이르면 더 이상 붕괴되지 않는다. 그러나 안정된 원자핵이라도 입자 가속기에 서 나온 고속의 입자를 충돌시켜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어 주면 인공적으로 방사선을 방출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공적 방사성 원소는 쉽게 만들어 낼 수 있고 값도 비싸지 않아 과학적인 탐구나 산업, 의료 활동 등에 많이 활용된다.

⑤ 하이데거의 '새로운 사유'가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에 근거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 ④의 판단 근거와 같다.

5

[정답 맞히기]

⑤ ③이 ④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붕괴되지 않는 안정된 물질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 ③이 알파 붕괴와 베타 붕괴를 하여 ④가 된다 하더라도, 질량수가 큰 불안정한 원자핵은 납과 같이 안정된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붕괴된다.

[오답 피하기]

① ③이 ④가 된 것으로 보아, ③은 질량수가 큰 불안정한 원자핵이다.
→ ③이 알파 붕괴를 하여 ④가 된 것으로 보아, ③은 질량수가 큰 불안정한 원자핵임을 알 수 있다. 알파붕괴가 일어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교재 '생각하며 글 읽기'
▶정의 + 대상[1]

< 지 문 >

[1]알파 붕괴란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로, 질량수가 큰 불안정한 원자핵들이 질량수가 작은 안정된 원자핵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이때 방출되는 알파선은 헬륨의 원자핵인데, 이것은 두 개의 양성자와 두 개의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② ③이 ④가 되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③은 헬륨의 원자핵이다.
→ ①의 해설에 있는 지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알파붕괴가 일어나면, 알파선, 즉 헬륨의 원자핵이 방출된다.

③ ③이 ④가 되면, 질량수는 원자 번호가 감소하는 것의 두 배만큼 감소한다.
→ ②의 판단근거와 동일하다. 헬륨의 원자핵이 방출되므로 원자번호는 2만큼 감소하고, 질량수는 4만큼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질량수는 원자번호가 감소하는 것의 두 배만큼 감소한다.

④ ③이 불안정한 들뜬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④로 붕괴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 ③이 안정했다면, 감마선을 방출하는 감마붕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감마붕괴는 알파붕괴와 베타붕괴를 통해 새로 생긴 원자핵이 불안정한 들뜬 상태에 있을 때 안정된 상태로 변하기 위하여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기에, 불안정한 들뜬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④로 붕괴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6

[정답 맞히기]

- ③ 방사선에 의한 생물학적 변화 현상은 인공적 방사성 원소 때문에 생기기 시작했군.
- 방사선에 의한 생물학적 변화는 인공적 방사성 원소 뿐만 아니라, 자연 방사성 원소에서 나온 방사선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방사선이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데 중요한 요인은 생명체를 통과하는 방사선의 양에 달려 있다. 근거는 지문의 다음 부분과 같다.

— < 지 문 > —

그러나 방사선은 생명체를 통과하면서 전리(電離)* 현상을 일으켜 세포의 분열 저해, 돌연 변이, 조직의 파괴 등 여러 가지 생물학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인과 달리 방사성 원소를 많이 취급하는 사람은 일정량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 ① 퀴리 부인은 방사선의 전리 현상 때문에 병을 얻게 되었군.
- 위 발췌한 지문에 그대로 근거가 나와 있다. 방사선의 전리 현상 때문에 병을 얻게 되었다.
- ② 일반인은 자연 상태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대해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겠어.
- 방사성 원소를 많이 취급하여 방사선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들과 달리 일반인의 경우 (자연상태에서) 방사선에 대해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 ④ 퀴리 부인은 자연 방사성 원소를 발견할 때 고속의 입자 가속기를 사용하지 않았겠군.
- 자연 방사성 원소는 안정된 물질에 이르면 더 이상 붕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정된 원자핵일지라도 입자가속기에서 나온 고속의 입자를 충돌시켜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어주면 인공적으로 방사선을 방출시킬 수 있습니다. 퀴리부인은 자연 방사성 원소를 발견했기에, 고속의 입자 가속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옳습니다.
- ⑤ 병원의 방사선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정량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거야.
- 이 선지의 판단 근거도 발췌한 지문에 있다.

7

[정답 맞히기]

- ④ 원자 번호와 질량수가 변하지 않는다.
- 베타선과 감마선이 함께 방출되는 것이 1회 발생할 경우, 베타 붕괴에 따라 중성자 하나가 양성자로 바뀌기 때문에 원자 번호는 하나 증가하지만 질량수는 변하지 않다.

2014년 4월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A)

8

[정답 맞히기]

- ⑤ 특정 개념의 적용 양상들을 제시하고, 각각의 양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이 지문에서는, 고대 그리스에서 정의 개념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다가 점차 윤리와 정치라는 특정 분야에 주로 적용된다는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정의 개념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아낙시만드로스, 히포크라테스의 정의 개념을 윤리와 정치 분야에 적용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개념을 예로 들고 있다. 따라서 특정 개념의 적용 양상들을 제시하고, 각각의 양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는 선지는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특정 개념의 통시적인 변화를 설명하고, 앞으로 일어날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있다.
- 특정 개념은 '고대 그리스에서의 정의'로 볼 수 있고, 아낙시만드로스&히포크라테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되어 있으니 통시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 일어날 변화 양상을 예측한다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
- ②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설정하고, 각각의 견해에 대해 사례를 들어 비판하고 있다.
- 위 지문은 특정 개념을 설명하고 예시들을 들고 있는 지문으로, 각각의 견해에 대해 사례를 들어 비판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선지이다.
- ④ 특정한 이론과 관련된 개념들을 제시하고, 이론에 대한 근거들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있다.
- 아낙시만드로스, 히포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과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각 이론에 대한 근거들의 적절성을 판단하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다.

9

[정답 맞히기]

- ③ 아낙시만드로스는 원소들의 조화를 되찾게 하는 힘이 대립자들의 정의라고 규정했다.

— < 지 문 > —

그런데 아낙시만드로스는 불의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미약했던 것들은 강해지고 막강했던 것들은 약해져서 다시 우주의 질서가 돌아온다고 보았고, 이것이 곧 우주가 정의를 되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위 2문단 내용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오답 피하기]

- ① 고대 그리스인들은 대립자들의 조화에서 정의가 비롯된다고 생각했다.
→ 1문단의 '더 나아가 그들은 대립자들의 조화가 정의를 가져온다고 생각했다.'로 보아 적절한 진술이다.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다.
- ② 아낙시만드로스는 우주의 질서가 무너진 것을 불의라고 규정했다.
→ 2문단 '그(아낙시만드로스)에 따르면 힘의 균형이 깨지면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데, 그것이 불의(不義)이다.'로 보아 적절한 진술이다.
- ④ 히포크라테스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그 예방을 중시했다.
→ 2문단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요점은 병이 났을 때의 치유 방법에 있다가보다는 식이요법을 통한 예방에 있다.'로 보아 적절한 진술이다.
- ⑤ 히포크라테스는 몸 전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 사이의 조화를 건강이라고 보았다.
→ 2문단 '그(히포크라테스)에게 건강은 몸 전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 사이의 조화였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10

[정답 맞히기]

- ⑤ ㉠은 개인의 정의로운 윤리를 바탕으로 법이 제정되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군.
→ 4문단의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이 정의로우려면 법을 제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의로운 윤리를 바탕으로 한 행위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로 보아, 아리스토텔레스는 법 제정에 있어서 개인의 정의로운 윤리를 중시하고 있는데, <보기>의 트라쉬마코스는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이 강조하는 법은 중용의 덕성을 보편화하고 있군.
→ 4문단의 '윤리적 측면에서, 그는 정의가 지닌 조화의 의미를 '중용'이라고 규정한다.'로 보아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이라는 개념을 언급했는데, 트라쉬마코스가 강조하는 법은 중용의 덕성을 보편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② ㉠은 계층 간의 평등 실현을 위해 법을 제정하고 있군.
→ 4문단의 '또 정치적 측면에서, 그는 평등과 합법성이 결합된 '법 앞에서의 평등'으로 정의를 규정한다.'로 보아 아리스토텔레스는 평등을 언급하는데, 트라쉬마코스는 계층 간의 불평등을 전제해 법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③ ㉠은 지배자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군.
→ 4문단의 '또 정치적 측면에서, 그는 평등과 합법성이 결합된 '법 앞에서의 평등'으로 정의를 규정한다.'로 보아 아리스토텔레스는 합법성을 언급하는데, 트라쉬마코스는 지배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 제정을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④ ㉠이 규정한 정의 개념에는 피지배자들의 자발적 실천이 전제되어 있군.
→ 4문단의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이 정의로우려면 법을 제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의로운 윤리를 바탕으로 한 행위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로 보아,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의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트라쉬마코스는 법을 위반하는 피지배자를 범법자로 처벌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2014년 7월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공통)

11

[정답 맞히기]

- ② 파레토 이론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지문은 파레토 개선, 파레토 최적과 같은 키워드를 가진 파레토의 경제학 이론을 설명하는 글로, 이론을 설명하고 이의 적용사례를 보여주나 발전 과정에 관한 내용은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파레토 최적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고 있다.
→ '파레토 최적' 단어는 1문단에서 처음 등장했지만, 파레토 최적의 의미는 정의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2문단 예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특성은 2문단부터 지문 마지막까지 또한 예시를 통해 밝히고 있다. 3문단, 4문단에서 말하는 의미와 한계가 그 중 하나이다.
- ② 파레토 이론의 한계와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 3문단, 4문단에서 의미와 한계를 제시한다.
→ 의미(1)-한계-의의(2) 순서로 제시하고 있으며, 첫 번째 의미는 두루뭉술하게 '선택의 기회를 보장한다.'와 같이 이야기했으나, 두 번째 의미는 경제학에서 본질적으로 파레토 최적이지 않는 의미를 제시하는 등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글을 마무리 하고 있다.
- ④ 파레토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 2문단에 제시하며 파레토 최적과 파레토 개선의 의미를 밝힌 사례가 파레토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 상황이라 볼 수 있다.
- ⑤ 파레토 최적의 상황을 파레토 개선과 관련지어 밝히고 있다.
→ 지문은 파레토 개선, 파레토 최적과 같은 키워드를 가진 파레토의 경제학 이론을 설명하는 글로, 이론을 설명하고 적용사례를 보여주나 발전 과정에 관한 내용은 없다.

12

[정답 맞히기]

▶ 보기 분석

먼저 교환하기 전 영희의 만족도를 6a, 철수의 만족도를 6b라 하자. a와 b는 임의의 수로 두 숫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 ㉡, ㉢의 상황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구분	최초의 상황		㉠		㉡		㉢	
	사과	배	사과	배	사과	배	사과	배
영희	6개	0개	0개	6개	3개	6개	2개	6개
만족도	6a		6a		9a		8a	
철수	0개	6개	6개	0개	3개	0개	4개	0개
만족도	6b		12b		6b		8b	

최초의 상황에서 ㉠, ㉡, ㉢로 가는 것 모두 파레토 개선이라 할 수 있다.

- ⑤ ㉠~㉢ 중 영희가 얻을 수 있는 만족도는 ㉢에서 가장 크며, 철수 역시 그러하기에 ㉢를 파레토 최적으로 볼 수 있다.
 → 최초의 상황에서 ㉢로 갔을 때, 더 이상 사과나 배를 서로 주고받아도 서로 손해가 되지 않으면서 상황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파레토 최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 중 영희가 얻을 수 있는 만족도는 ㉢가 아닌 ㉡에서 가장 크며, 철수도 ㉢가 아닌 ㉠에서 가장 크므로 틀린 설명이다.

[오답 피하기]

- ③ ㉢에 대해 서로 합의한 이유는 영희와 철수의 만족도 모두 최초에 비해 증가하였고,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 이를 파레토 개선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 중에서 어떻게 움직여도 더 이상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그때가 파레토 최적이다.

13

[정답 맞히기]

- ⑤ 모두에게 손해가 되지 않으면서 효용을 증가시키는 상황
 → 파레토 개선과 최적의 핵심 내용이다. 파레토 이론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는 존재하지만, 양쪽에서 모두 손해가 되지 않으며 이득을 늘리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기에 자유시장에서 유용한 경제학 개념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선택의 기회가 많을수록 이익은 줄어드는 경우
 → 선택이 많으면 파레토 개선에 따라 움직일수록 겉거나 이익이 더 커질 것이다.
 ② 경제 주체 간의 타협보다는 경쟁이 중요한 이유
 → 위 내용은 지문에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③, ④
 → 지문과 크게 벗어난 설명들이다.

2015년 3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A)

14

[정답 맞히기]

▶ 지문 요약

갈릴레이와 마흐는 운동의 상대적인 관점을 중요시하였고 뉴턴은 운동의 절대적 관점을 중요시하여 '절대 공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고 한다. 이때, 마흐는 갈릴레이보다 더 세분화되었으며 구체적인 견해를 보였으므로 더 발전된 견해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 ③ 뉴턴의 공간 개념은 마흐에게 계승되어 더 발전된 모습이 되었다.
 → 뉴턴의 공간 개념은 운동을 절대적 관점으로 파악하는 것이고 마흐는 운동을 상대적 관점으로 파악하므로 관점이 계승되지 않고 상반되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4문단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 지 문 >

그러나 이후 절대 공간 개념에 회의를 품는 사람들도 있었다.

[오답 피하기]

- ① 갈릴레이에게 운동은 기준에 따라 달리 서술될 수 있었다.
 → 갈릴레이의 관점은 1문단에 서술되어있다. 그에 따르면 운동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② 지구 위의 사람들은 지구가 회전하는 것을 지각하지 못한다.
 → 1문단에 '지구는 약 1,600km/h의 속도로 자전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느끼는 사람은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적절한 진술이다.
 ④ 뉴턴은 물체의 운동에 대해 갈릴레이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했다.
 → 2문단에 '뉴턴은 물체의 운동에 대해 갈릴레이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하며 정지 상태와 등속 운동의 진정한 의미를 물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마흐의 공간 개념은 아인슈타인이 우주론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주었다.
 → 5문단 마지막 부분에 '마흐의 공간 개념은 아인슈타인이 공간과 우주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적절한 설명이다.

15

[정답 맞히기]

- ③ 속도의 변화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들 간의 비교를 통해서만 감지될 수 있다.
- 비교를 통해서만 감지될 수 있다는 견해는 갈릴레이와 마흐의 견해이다. 갈릴레이의 견해는 1문단에서, 마흐의 견해는 4,5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운동은 어느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의 이동이다.
- 절대적 관점에 따르면 운동이란 관찰자에 상관없이 어느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의 이동이라는 것을 지문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 ② 운동을 정의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절대 공간이다.
- 2문단에 '그래서 뉴턴은 우리의 오감으로는 느낄 수 없지만 어쨌거나 객관적으로 존재하면서 움직이지도, 변하지도 않는 공간을 상정하고 이를 절대 공간이라 명명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④ 운동하는 물체와 정지한 물체는 각각 절대 공간에 대하여 운동하고 정지해 있다.
- 뉴턴에 의하면 절대 공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뉴턴이 생각한 공간은 물리적인 실체로서, 운동하는 물체가 특정 시간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규정할 수 있는 절대적 배경이다.' 즉, 운동의 기준을 절대 공간으로 둔다는 것으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⑤ 절대 공간은 실제로 증명된 것이 아니지만 물리적인 실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 2문단에서 '그래서 뉴턴은 우리의 오감으로는 느낄 수 없지만 어쨌거나 객관적으로 존재하면서 움직이지도, 변하지도 않는 공간을 상정하고 이를 절대 공간이라 명명했다.'고 하며, 오감으로 느낄 수 없다는 말을 '증명되지 않았다'로 서술하였다. 따라서 적절한 진술이다.

16

[정답 맞히기 & 오답 피하기]

4문단에서 마흐의 관점에 따르면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며 물질의 분포 상태에 따라 운동이 달라진다고 한다. 따라서 빛줄은 느슨하게 당겨질 수도 있고 팽팽하게 당겨질 수도 있는데 이는 우주 안의 물질들의 분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마흐의 관점에 가장 부합하는 견해는 ⑤이다. ①, ②, ③에서 '어떤 조건에서도' 라는 한정문은 틀린 진술이다. 또한 ①에서 어떤 공간에서도 운동이 동일하게 지각된다는 것은 뉴턴의 관점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②에서 천체들이 균질하게 분포하여 변치 않는다는 진술은 4문단의 내용과 모순되는 진술이다. ③번에서 텅 빈 우주 안에서라면 회전 운동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어떤 조건에서도 빛줄이 느슨하게 당겨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 ④의 돌맹이들의 위치 관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지문 내에 서술되지 않은 진술이다.

17

[정답 맞히기]

- ⑤ 마흐는 야구공을 기준으로 본다면 재석이가 정지 상태에 있다고 말할 것이다.
- 재석이는 야구공을 위로 던졌다가 다시 받는 놀이를 하였으므로 마흐는 야구공을 기준으로 할 때 재석이가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운동을 하였다고 말할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오답 피하기]

- ① 갈릴레이는 슬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슬기의 책의 이동 속도는 0 km/h라고 말할 것이다.
- 슬기를 기준으로 볼 때 슬기는 책을 읽고 있으므로 움직이지 않고 자신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슬기는 책의 이동 속도를 0km/h로 볼 것이다.
- ② 뉴턴은 절대 공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재석이와 슬기의 이동 거리는 같다고 말할 것이다.
- 뉴턴에 따르면 절대공간에 따라 수학적으로 운동을 파악한다. 뉴턴에 따르면 재석과 슬기는 기차에 타서 앉아 있었으므로 둘 다 절대 공간을 기준으로 하여 시속 200km/h로 운동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 때 시간은 동일하게 흐르므로 이동거리도 같다고 말할 것이다.
- ③ 뉴턴은 절대 공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슬기의 책은 운동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 뉴턴에 따르면 슬기의 책은 절대 공간을 기준으로 하여 시속 200km/h로 운동할 것이라고 볼 것이다.
- ④ 마흐는 슬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슬기와 재석의 위치 관계는 변함이 없었다고 말할 것이다.
- 마흐는 상대적 관점에 따라 운동을 파악한다. 기차 내에서 슬기와 재석의 위치 관계만을 고려할 때, 둘은 각자 의자에 앉아 있었으므로 위치 관계는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2011년 3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18

[정답 맞히기]

- ② 러시아 성화의 표현 기법과 그 의미
 - 성스러움을 드러내는 방식

→ 이 글의 주제는 러시아 성화의 표현 기법이다. 이를 나타내기 위해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과, 서구의 미술사학자들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러시아 성화에서 인물들은 상징적 중요성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또한 러시아 성화는 일점원근법에서와 달리 고정되지 않은 시점을 통해 사물의 모습을 표현한다. 러시아 성화는 이러한 표현 기법을 통해 세속을 재현하는 것이 아닌, 성스러운 신의 세계를 표현하려 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㉔이며,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다.

■교재 '생각하며 글 읽기'

▶논지의 역접(그런데) & 논지의 제한(이/그/저) & 대상제시

< 지 문 >

그런데 러시아의 성화(聖畵) 화가들은 세속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들은 성경 이야기나 성스러운 신의 세계를 그렸는데, 이 그림들은 일점원근법과는 다른 표현 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추상과 구체 [~이 아니라, ~이다]

< 지 문 >

러시아 성화에서는 인물과 사물이 사실적으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중요성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성스러운 존재를 형상화할 때는 사물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모습까지도 드러낸다.

[오답 피하기]

- ① 시대와 공간에 따른 예술의 차이
 - 이탈리아와 러시아 회화를 중심으로
 → 이 글에서는 러시아 성화의 표현 기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시대와 공간에 따른 예술의 차이는 찾아볼 수 없다.
- ③ 러시아 성화의 신비로움
 - 현실성과 초월성의 이중주
 → 이 글에서는 러시아 성화의 표현 기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현실성과 초월성의 이중주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④ 러시아 성화의 원리와 이해
 - 원근의 조화가 빚어내는 아름다움
 → 이 글에서는 러시아 성화의 표현 기법에 대해 서술하며, 원근의 조화에 대한 내용은 서술되어 있지 않다.
- ⑤ 시점에 따른 회화의 변화
 - 원근법의 역사적 계승과 발전
 → 이 글에서는 러시아 성화의 표현 기법에 대해 서술하며, 시점에 따른 회화의 변화, 그 중에서도 원근법의 역사적 계승과 발전에 대한 내용은 서술되어 있지 않다.

19

[정답 맞히기]

- ② ㉔는 자신들의 에피스테메로 ㉕의 작품을 감상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 <보기>에 의하면, 에피스테메는 특정한 시대의 사상을 하나로 묶어 주는 궁극적 원리를 말한다. ㉕는 러시아의 성화 화가들로, 그들의 에피스테메를 가지고 있으며, 그 뿌리를 둔 표현의 양상은 ㉔와 ㉕의 에피스테메와는 차이가 있다.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재 '생각하며 글 읽기'

▶ 논지의 역접(그런데) & 논지의 제한(이/그/저) & 대상제시

< 지 문 >

그런데 러시아의 성화(聖畵) 화가들은 세속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들은 성경 이야기나 성스러운 신의 세계를 그렸는데, 이 그림들은 일점원근법과는 다른 표현 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 <보기>에서는 에피스테메가 '진보'하지 않으며 반복된다 하였는데, ㉕는 ㉕의 작품을 보고, '원근법이 없는 원시적인 표현 방식으로 그려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에피스테메로만 ㉕의 작품을 감상하려 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종의 오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답 피하기]

- ① ㉔의 에피스테메는 ㉕보다 '진보'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 <보기>의 관점, 에피스테메는 연속이 아닌 불연속, 계승이 아닌 단절, 진보가 아닌 반복으로 보는 관점과 일치하지 않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③ ㉔와 ㉕는 서로 유사한 에피스테메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 글에 따르면 사물을 표현할 때, 시점의 고정과 움직임이라는 측면에서 둘은 차이가 나므로 서로 유사한 에피스테메를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다.

■교재 '생각하며 글 읽기'

▶추상과 구체 [~이 아니라, ~이다]

< 지 문 >

러시아 성화에서는 인물과 사물이 사실적으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중요성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성스러운 존재를 형상화할 때는 사물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모습까지도 드러낸다.

+또한 그들은 초월적 존재인 신이 세상의 곳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시선을 표현하다 보니 대상을 바라보는 시점은 어느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움직인다. 일점원근법에 서와는 달리 하나의 그림 속에 여러 개의 시점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성화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탁자나 의자 등은 이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④ 에피스테메의 '반복'으로 인해 ㉔는 ㉕의 작품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 부정표현에 주의하여 독해한다. ㉔당시의 감상자들은 러시아 성화 화가들의 그림을 이해할 수 있었다.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다.

■교재 '생각하며 글 읽기'
 ▶논지의 역접(열린반대) & 논지의 제한(이/그/저)

< 지 문 >

현재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표현은 왜곡으로 생각 되겠지만, 당시의 감상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그림에 표현된 인물과 사물의 형상이 본래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아울러 세상의 곳곳을 향하는 초월자의 시선이 자신에게도 미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 그들의 입장 : 성화의 감상을 통해 성스러운 신의 세계를 체험했던 것이다.

⑤ 지역적 차이를 뛰어넘어 ㉕의 에피스테메는 ㉔에게 '계승'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보기>의 관점, 에피스테메는 연속이 아닌 불연속, 계승이 아닌 단절, 진보가 아닌 반복으로 보는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다.

20

[정답 맞히기]

③ 탁자와 같은 사물과 인물들이 함께 그려져 있다는 사실에서, 화폭 안에 여러 개의 시점이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단순히 탁자와 같은 사물과 인물들이 함께 표현되어 있다는 것에서 시점의 공존을 확인할 수는 없다. 시점의 공존의 의미를 지문 속의 내용을 통해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

■교재 '생각하며 글 읽기'
 ▶추상과 구체 [-이 아니라, ~이다]

< 지 문 >

러시아 성화에서는 인물과 사물이 사실적으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중요성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성스러운 존재를 형상화할 때는 사물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모습까지도 드러낸다.

+또한 그들은 초월적 존재인 신이 세상의 곳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시선을 표현하다 보니 대상을 바라보는 시점은 어느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움직인다. 일점원근법에 서와는 달리 하나의 그림 속에 여러 개의 시점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성화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탁자나 의자 등은 이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 사물과 인물을 함께 표현하는 것이 시점의 공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점원근법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시점의 공존은 탁자를 여러 시점에서 표현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이 성화를 본 당시의 감상자들은 인물들이 반원의 형태가 아닌 원형의 탁자에 둘러 앉아 있다고 이해했겠군.
 → [정답 맞히기]의 판단근거인, 4문단에서 성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반원형의 탁자는 원형을 표현한 것이며, 19번 문항의 판단근거 부분에 의해, 당시의 감상자들은 이러한 형태가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② 탁자에 가려 보이지 않아야 할 왼쪽 첫 인물의 전신을 드러낸 것은 대상을 성스럽게 표현하려는 의도에서였겠군.
 → 왼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인물은 하인들보다 상징적으로 중요한 존재들이다. [정답 맞히기]의 판단근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물들은 상징적 중요성에 따라 다르게(후광, 크기의 차이) 표현되며, 성스러운 존재를 형상화할 때는 사물에 가려진 모습(왼쪽에서 첫 번째 인물은 전신이 모두 드러남)까지 표현한다고 했다.

④ 왼쪽의 두 인물에만 그려진 머리 주변의 후광은, 이들이 다른 인물에 비해 상징적으로 중요함을 드러내는 표현이겠군.
 → ②의 설명과 동일하다.

⑤ 탁자 앞에 있는데도 다른 인물에 비해 작게 표현된 하인들의 모습에서, 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군.
 → ②의 설명과 동일하다. 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았다.

'수능 국어와 교육', 읽다, 그리고 사유하다
 국어강사 심찬우